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국문초록>

보니거트의 『고양이 요람』에서의 패러디와 비판적 기능

鄭 喜 旭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指導敎授 卞 鐘 民

1963년 발표된『고양이 요람』(*Cat's Cradle*)은 보니거트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자유기고가인 존(John)이 책을 쓰고자 취재하며 겪은 일을 담고 있다. 독자는 존의 여정을 따라가며 보니거트가 그려내는 과학과 종교에 대해 씁쓸하지만 흥미로운 묘사를 마주하게 된다. 본고에서는 보니거트가 조명하고자 한 현실의 모순을 살피고 그가 왜 이를 파헤치려 하였으며, 그의 뜻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보니거트의 개인적 삶의 자취와 경험들을 들여다보는 것은 보니거트 만의 이야기 전개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졌다. 그는 어머니의 자살로 인해 사람에 대한 기본적 기대치를 낮추게 되었다. 줄곧 비관적이기만 하던 아버지는 보니거트가 긍정적인 인간상을 구축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망가진 처참한 잔해 속에 살아남은 보니거트는 인간의 생(生)만이 진정 고귀한 가치임을 인식하였다. 보니거트는 인본주의적 사상을 잘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자라온 문화권의 보편적 특징들에 어긋나는 등장인물과 서술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생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기 위해, 보니거트는 자신이 겪어온 삶의 자취에서 한 발짝 떨어져 비평적 거리를 유지하였다. 또한 작품들 속에 자신의 성장배경인 가족,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무관심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반영해 낸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의 작품들에 어머니 상을 부재하게 하고, 여성상에 대한 최소기대치를 낮춰버렸다. 아버지와의 소원한 관계는 작중 아버지들의 모습에도 반영되어 오이

---

*본 논문은 201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디푸스 콤플렉스적 압박은 해소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발달의 가장 큰 부작용이 펼쳐지는 전쟁 속에서 보니거트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게 된다. 그가 생계를 위해 일하던 곳에서의 경험, 그리고 형의 발명품이 전쟁에 악용되었던 일 또한 그가 과학의 맹목성을 비판하는 데 일조했다. 과학이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없었던 것에 더해 종교적 신념도 그의 영혼에 구원이 되어 주지 못했다. 보니거트는 보코논교라는 종교가 구성되고 추종되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종교 체계의 작위성을 패러디로 반영해내고, 종교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사회가 정체되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종교문명을 비판한다.

보니거트는『고양이 요람』에서 실존적 삶의 체험을 바탕에 놓고 자기반영 방식의 패러디로 서사구조를 설정한다. 내용적으로는 현대문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과학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인 보니거트가 체험한 가족과 성장환경, 제2차 세계대전, 종교적 허무주의, 과학문명의 위기는 그 자체로 패러디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한 편의 공상과학소설로만 읽어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안팎과 뒤에 숨겨진 패러디로부터 그의 비판의식과 그가 그려내는 새로운 비전을 읽어내는 것이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Ⅰ. 서론 ····· 1

Ⅱ. 자기반영의 패러디 ····· 7

Ⅲ. 과학문명의 패러디 ····· 20

Ⅳ. 종교문명의 패러디 ····· 39

Ⅴ. 결론 ····· 56

참고문헌 ····· 59

Abstract ····· 6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Ⅰ. 서론

보니거트(Kurt Vonnegut, 1922-2007)는 공상과학소설 계열의 포스트모던 작가군으로 구분된다. 그의 작품세계는 본질적으로 비관주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보니거트는 블랙 휴머리스트, 후기 실존주의자 내지는 부조리 소설가의 범주로 분류되기도 한다. 비평가들은 이 작가군의 특징으로 종말론적 위기의식, 패러디(parody)나 판타지(fantasy), 소극(burlesque) 등의 표현기법, 리얼리티 대신 왜곡·희화화·과장된 측면의 인물묘사,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터무니없는 플롯, 그리고 도덕적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태도 등을 지적하고 있다.[1)]

특히 보니거트는 현실 풍자가이자 감상주의적 공상가로 평가되고 있다.[2)] 『고양이 요람』에서도 그는 세계와 인류의 실상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과학적 상상력에 아이러니와 유머를 더해 보여주고 있다. 보니거트가 바라보는 현대사회는 전통적 가치관의 상실, 과학기술의 오용, 환경적 재앙, 사회의 부조리, 물질만능주의 등의 수많은 사회문제로 말미암아 문명의 한계와 위기에 봉착해있다.[3)] 이 소설에서 그는 인류의 파멸을 예고하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파멸의 위기감으로 가득 찬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분노, 죄악, 사랑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보니거트는 "소설가는 글쓰기를 통하여 사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4)]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면에서 그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가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 종교문제, 인간애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통찰력을 지닌 사회비평가라고 할 수 있다.

보니거트는 1952년 『기계 피아노』(*Player Piano*)를 시작으로 『타이탄의 미녀』(*The Sirens of Titan*, 1959)와 『마더 나이트』(*Mother Night*, 1961)를 발표했지만 한낱 공상과학소설가로 분류되며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보

1) 육은정, 「Kurt Vonnegut의 초기소설 연구-비관주의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p. 4.
2) 변종민, 「Kurt Vonnegut, Jr.의 *Cat's Cradle*에 나타난 力動的 均衡과 神聖의 人間愛」, 『제주대학교논문집』 24.1(1987), p. 81.
3) 박광희. 「커트 보니것의 문명관과 비전 연구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55.4 (2013), pp. 161-180.
4) W. R. Allen,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Jackson: U of Mississippi P, 1988) p. 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니거트가 문학비평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3년 발표한 『고양이 요람』(*Cat's Cradle*)이 대학가 등에서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클래식(underground classic)의 위치를 차지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65년 『신의 축복이 있기를 로즈워터씨』(*God Bless You, Mr. Rosewater*)를 발표하고 잇따라 『제5 도살장』(*Slaughterhouse-Five,* 1969)을 발표하며 보니거트는 인기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고양이 요람』은 『제5 도살장』과 더불어 보니거트에게 명성을 안겨 준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보니거트는『고양이 요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냉전시대에 미국과 미국인들이 처한 사회적 위기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고양이 요람』은 소설 속 화자가 『세상이 끝난 날』(*The Day the World Ended)*이라는 책을 쓰고자 하는 과정에서 휩쓸린 일에 대해 쓰고 있다. 그가 쓰고자 했던 책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던 날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그는 우선 원폭을 만드는데 가장 공이 컸던 과학자 펠릭스 호니커(Dr. Felix Hoenikker)의 일생을 추적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뉴욕 주 일리엄(Illium)과 남미의 섬나라 산로렌조(San Lorenzo)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일리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전반부는 주로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고, 산로렌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후반부에서는 주로 종교문명에 대해 비판한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cat's cradle'은 이 모든 비판의 대상들을 매우 집약적으로 상징한다. 이는 고리모양으로 묶은 실을 손가락에 걸어 이런저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실뜨기 놀이의 한 가지로, "두 손 사이의 X자들에 불과한"(A cat's cradle is nothing but a bunch of X's between somebody's hands)것이며 실제로는 거기에 "고양이도 없고 요람도 없다"(No damn cat, and no damn cradle)(p. 11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요람 속에 잠든 고양이의 모습을 본다. 보니거트는 인간이 언제나 과학이든 종교이든 무의미한 것에 굳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찾아내고자 한다는 점을 이 고양이 요람을 이용해 드러

5) Kurt Vonnegut. *Cat's Cradle* (London: Penguin Books, 2008), p. 118. 이하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 숫자만 명시키로 하며, 번역문은 『고양이 요람』 (박웅희, 경기 일산: 아이필드, 2004)을 참조하였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고 있다. 보니거트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문학 또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고 암시한다.

보니거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학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그의 신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평가들은 보니거트가 진정한 의미에서 비관적인가를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주로 『제5 도살장』을 중심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보니거트에 대한 국내 연구는 그의 글쓰기 스타일 중 기법과 형식의 측면에서 수행되었으며, 주로 과학소설, 실험기법, 블랙유머 등 편중된 시각에서 이뤄진 경향이 있다. 이후로 포스트모더니즘적 해석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작품들에 드러난 메타픽션적 요소나 자기반영성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거트는 전쟁에 참여해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환상이 인류문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종교, 사랑, 금전, 전쟁, 무기에 대한 맹신, 정의감, 그리고 오만한 기술과 예술 등에 대한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에서 생겨나는 헛된 환상과 오도된 희망이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주된 요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비인간적인 사회와 제도, 부패한 정치, 그리고 비양심적인 20세기 서구사회를 그리며, 환경오염과 핵무기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성찰한다. 또한 그는 원자폭탄 투하 자체가 인류사회의 온전치 못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류는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한다.

보니거트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들이 기존의 관습이나 인습과 같은 보편적 상징체계에 어울리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성장한 문화의 틀을 기반으로 하되 기존의 표현방식이나 전통적 상징체계를 탈피하여 특유의 유머감각으로 새로운 표현방식을 찾아냈다. 이를 통해 세계와 인류의 위기와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인간이 경계할 바를 지적하고 지향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그는 현대 문명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이고 치밀한 관심을 보이며 문명의 위기와 경고를 담은 자신만의 문명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는 순수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기치로 내세우는 과학우월주의에 매몰된 현대문명이 도덕적 무관심을 감추고 있을 뿐, 방향을 상실한 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본다. 그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비전이 인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양이 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람』에서 그는 자기반영의 패러디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삶의 현상과 체험을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설정하여 현대의 종교문명과 과학문명을 비판한다. 그는 이런 비판적 기능을 통해 인류를 위기에서 구제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니거트의 작품세계가 전반적으로 냉소적이기는 하지만, 비전이나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의 작품에는 비관주의적인 현실 인식과 낙관주의적인 가치 지향성 사이에 긴장이 서려 있다. 이 긴장상태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이야말로 보니거트의 소설이 지닌 역동성의 원천이며 예술성의 토대이다. 그는 이런 비관과 낙관의 긴장 상태를 패러디의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패러디(parody)는 전통적으로 "특정한 작품의 진지한 내용이나 양식, 또는 특정한 작가의 특징적 문체를 모방하여, 이것을 대체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저급한 주제에 적용"[6]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본래 패러디는 작가의 창조성에 위배되는 형태라는 점에서 다소 저열한 문학으로 여겨졌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문학형식이자, 표현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허천(Linda Hutcheon)이 "포스트모던 패러디야말로 재현의 역사를 인정하는 형식이며 가치와 규범을 문제 삼는 형식"[7]이라고 주장하듯, 패러디는 포스트모던 소설에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재창조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패러디는 전통적으로 모방, 해체, 변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포스트모던 문학에서의 패러디는 이에 더하여 왜곡, 과장, 첨가, 생략, 착시 등의 기법을 차용하며 그 범위와 기능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기반영의 패러디에서는 삶의 체험 자체가 텍스트가 되고 패러디 형식을 통해 해체와 재구축의 과정을 거친다. 자기반영의 패러디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내러티브로 구성되며, 이 내러티브 자료는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 나온다.[8]

보니거트가 자라온 1920년대 대공황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시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는 특히 경쟁적으로 과학기술발전에 뛰어들었다. 인류의 나아갈 길을 비추는 것은 과학일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해졌다. 아버지와 형뿐만 아

6) M. H. Abrams,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옮김 (서울: 예림기획, 1997), p. 41.
7) Linda Hutcheon, 『패러디 이론』, 김상구 · 윤여복(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2) p. 55.
8) Michael Warner, "Literary Studies and the History of the Book," *Book* 12: 3-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니라 자기 자신도 과학을 전공했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보니거트가 보기에 세상의 문제는 과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하는 순수한 목적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조차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사건을 목격하였다. 보니거트는 과학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망각할 때 인류문명에는 발전이 아니라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고양이 요람』에서 인간성이 부재한 과학자가 오직 과학만을 위한 과학 연구에 몰두한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인류의 비극을 그려낸다.

삶의 비전을 제시해줄 도구로서 흔히 제시되는 종교는 보니거트에게 있어 그리 명쾌한 해답이 아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만, 보니거트에게 종교는 인간에게 진리가 아닌 거짓의 위안을 주는 데 불과하다. 『고양이 요람』에서 보니거트는 산로렌조의 비참하고 가혹한 현실 속에서 민중이 자기파괴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보코논교(Bokonon)를 만들어 보여준다. 보니거트가 그러하듯 보코노니즘(Bokononism)이 유일하게 신성하다 여기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신조차도 아닌 오직 인간이다. 따라서 보코논이 인간을 조금이라도 덜 불행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기에 '효력을 발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코논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그 섭리가 존재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종교(특히 기독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개념체계를 만들어낸다. 보코논교는 그 특성상 여타 종교와 결정적인 차이를 두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항상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것을 참이라고 믿어버리지 말도록 늘 경고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패러디의 확장된 정의와 범주 그리고 그 기능을 통해 보니거트의 『고양이 요람』을 살펴보면, 보니거트는 자기 삶의 경험과 패러디 기법을 이용하여 냉혹한 아이러니와 통렬한 풍자를 구성함으로써 종교의 허무함, 도덕성이 결여된 과학을 비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니거트의 『고양이 요람』에서 패러디를 통해 펼쳐진 비판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보니거트가 자기반영의 패러디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어떻게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는지를 짚어보려 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아이스-나인(ice-nine)으로 상징되는 과학의 세계를 통해 현대 과학문명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 탐색해 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장에서는 보니거트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보코노니즘을 통해 어떻게 종교문명을 비판하는지 살펴본다. Ⅴ장에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 자기반영의 패러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자기반영성의 중요한 형식이며, “과거의 풍요롭고도 위협적인 유산”[9]을 가진 텍스트들과 직결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10] 사전적 정의로는 주로 조롱조의 모방을 일컫지만, 원작에 대한 경의를 간직한 아이러니컬하고 장난스러운 전도로부터 경멸적인 조롱조에 이르기까지 현대 패러디의 범주는 실로 광범위하다. 특히, 허천은 패러디의 어원 paradia(counter song, 대응 노래)에서 ‘para-’라는 어근이 갖는 ‘반(反)’과 ‘이외에’라는 두 가지 의미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차이를 가진 반복」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패러디를 정의한다.[11] 패러디의 두드러지는 기능은 풍자(satire)이다. 이 풍자의 방식은 “간접적으로 풍자의 대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암송하거나’ 혹은 비웃는 대상을 은근슬쩍 언급하는데, 주로 파괴나 반전을 꾀하여 후자의 방법론을 사용한다.”[12] 보니거트의 포스트 모더니스트적 특성에 허천의 확장적 정의를 고려한다면, 보니거트의 패러디 대상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비판적 기능이 부각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후기 산업사회의 사회문화적 논리로서 서구문화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 시대정신 내지는 인식소라고 할 수 있다.[13] 또한 19세기 중엽을 휩쓴 리얼리즘이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서구사회를 풍미한 모더니즘에 대한 반기로서 (어떤 측면에서는 ‘연속’의 성격도 지니는) 이른바 ‘탈근대’ 정신 및 현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새롭게 나타난 독창적인 인식론이라기보다는 총체성과 합일성에 기반한 서구 모더니즘 전통에 대한 의미심장한 재인식 내지는 재검토의 성격을 띠고 있다.

---

9) Walter Jackson Bate, *The Burden of the Past and the English Poet* (Cambridge: Harvard UP, 1970), p. 4.
10) Hutcheon, p. 12.
11) Hutcheon, p. 54.
12) S. D. Chen, *A Study of American Postmodernist Fiction* (Beijing: Higher Education P., 2007), p. 144.
13) 유혜령,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 『정신문화연구』 14(2), pp. 183-19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모더니즘 소설이 의식의 흐름을 주된 표현의 대상과 기법으로 삼았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은 패러디를 주요 서술기법으로 삼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구조주의나 모더니즘과는 달리 인간 주체, 즉 개별적 자아에 대해 깊이 탐구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작가는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고자 외부 세계를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모방하거나 재현한다는 기존의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전통을 와해시키기 때문에 리얼리티의 재현을 부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맥헤일(Brian McHale)은 문학작품이 실재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정성의 영역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실재에 대한 객관적 재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포스트모던 소설 또한 재현적이고 모방적이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내용의 차원에서는 반리얼리즘적일 수 있어도 형식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리얼리즘적이라, 포스트모던 소설은 여전히 리얼리티를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4] 이를 두고 김욱동은, "만약 리얼리즘 소설가들이 자연이라는 외부 세계를 향하여 거울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 소설가들은 자연을 향해 들고 있는 거울을 향해 또 다른 거울을 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라고 말한다.

문학 분야에서 포스트모던적 경향은 어느 한 문학 텍스트가 텍스트 밖에 존재하는 세계 또는 그 세계의 심오한 진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텍스트가 창작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한 주제로 다룬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텍스트라는 표현 수단의 불완전성을 내보이게 된다. 이는 결국 통합될 수 없고 총체화될 수 없는 인간 삶을 대상으로 한 '자기반영성'(self-reflection)의 패러디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16] 비평가들은 패러디를 메타픽션, 혹은 자기반영적 상호텍스트의 형태들과 동일선상에 놓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맥헤일은 패러디를 "자기반영과 자기비판의 형태"(a form of self-reflection and self-critique)[17]라고 설명한다. 자기반영의 패러디는 결국 작가 스스로 겪은 삶의 체험을 비판적 시각으로 되돌아보고 재구성하는 메타픽션의 성격을 띠게 된다.

현대문명의 위기, 전쟁으로 인한 혼란, 가공할 무기 개발로 인한 인류의 파멸

14) Brian McHale, *Postmodernist Fiction* (London: Methuen, 1987), p. 39.
15)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p. 55.
16) 유혜령, pp. 191-192.
17) McHale, p. 14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의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보니거트는 '불확정성' 및 '상대성', 그리고 '다원성'으로 설명되는 포스트모던 계열의 작가로 분류된다. 그리고 『고양이 요람』은 보니거트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정도로 작가 스스로 겪은 성장환경과 삶의 체험이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되는 자기반영을 패러디한 작품이다.

보니거트의 가족은 중산층 이상의 생활수준을 영위했었다. 아버지는 손꼽히는 건축가에, 어머니는 부유한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양조장의 딸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건축수요가 급감하자 수입 또한 급격하게 줄어, 집도 팔고 이사해서 보니거트도 사립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다. 이런 급격한 경제적 변화는 부모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아버지는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았고, 어머니는 삶을 포기해버렸다. 보니거트의 작품세계가 시종일관 인류문명에 대한 비관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보니거트 스스로 대공황 이후 자신의 부모 및 가족들이 겪은 좌절과 절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8] 이는 보니거트 스스로가 "나는 부모로부터 뼛속 깊은 슬픔을 배웠다"[19]고 고백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보니거트는 2남 1녀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자신이 가족들의 심심풀이 놀이 대상으로 취급되는 데 따분함을 느끼고, 항상 부모, 형, 또는 누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미있는 무언가를 해야 했음을 기억하며 여기서부터 유머감각이 출발하였음을 인정한다.

> 나는 우리집에서 막내였다. 어느 집에서나 막내는 익살꾼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어른들의 대화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누나는 나보다 다섯 살, 형은 아홉 살 많았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야기꾼이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마다 내 이야기는 다른 식구들을 몹시도 지루하게 만들었다. · · · · 내가 대화에 낄 딱 한 가지 방법은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20]

이처럼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했던 보니거트는 대공황이 휩쓸던 시절에 자라났는데,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견뎌내기 위해 유행하던 라디오 코미디에 몰두하여 "어린 시절 내내 적어도 밤마다 한 시간 동안

18) W. R.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South Carolina: U. of South Carolina P., 2009), p. 2.
19) Allen,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p. 89.
20) Kurt Vonnegut, *A Man without a Country*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1), pp. 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은 코미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출연자들이 어떤 농담을 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어린 시절의 이런 경험을 드레스덴 폭격과 그 공포를 그려내는 자신의 유머감각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는 "폭격 이전에 멀쩡했던 드레스덴을 보았고 폭격이 멈췄을 땐 방공호에서 빠져나와 폐허가 된 드레스덴을 보았다. 그로부터 생겨난 반응 중에는 분명 웃음이 있었다. 맹세컨대 웃음은 안도를 갈구하는 영혼의 산물이다. 유머는 두려움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라고 설명한다.[21)]

이후 보니거트는 가정의 경제적 몰락으로 사립학교를 나와 새로 다니게 된 쇼트리지 고등학교 교지에 원고를 썼고, 카네기 공대에 화학 전공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교지의 편집자로 활약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저널리즘의 "간단한 규칙들, 예컨대 직설적 표현, 단순한 문장, 독자를 의식한 문장"(get the facts right; compose straightforward, declarative sentences; know your audience)[22)]에 의거해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런 삶의 체험을 반영하듯 『고양이 요람』 주인공 화자의 직업도 자유기고가이며, 책을 쓰려고 자료조사를 하다가 겪게 되었던 일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메타픽션(metafiction)적 전개 자체도 자기반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메타픽션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개스(William Gass)는 메타픽션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소설 작성 또는 집필에 관한 소설(fiction about the making of fiction or fiction about fiction)이라 정의한다.[23)]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워(Patricia Waugh)는 『메타픽션』(*Metafiction)*에서 "메타픽션의 최하위 공통분모는 소설 창작과 그 창작과정에 대한 서술(즉 비평)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과정은 창작과 비평 간의 구분을 허물어뜨려 그들 둘을 융합시켜, '해설'과 '해체(deconstruction)'라는 두 개념으로 탈바꿈시키는 형식상의 긴장상태에서 결합되어 있다"[24)]고 부연설명한다. 창작과 창작과정에 대한 서술이라는 말로서, 소설에 나타난 실재의 허구성 즉 주관성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25)] 따라

21) Vonnegut, *A Man without a Country*, p.3.
22)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3.
23) Roboert Kiernan, *American Writing Since 1945* (New York: Frederick Ungar, 1983), p. 55.
24) Patricia Waugh,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Methuen, 1984), p. 6.
25) 신인철, 「Metafiction으로서의 *Cat's Cradle*」, 『동아영어영문학』6(1990), pp. 61-7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서 소설 창작과 비평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자기의식적, 자기반영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스트 작가들, 즉 메타픽션 작가들은 소설 자체와 그 창작과정 자체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세상의 객관적 실재와 생활에 대해서 점점 덜 쓰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26] 그러므로 메타픽션이 소설의 성립과정을 쓴 소설이라면, 『고양이 요람』의 구조 또한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보니거트의 인생과 작품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그의 나이 16세에 발발했다. 스무 살이 되자 보니거트는 군에 자원입대해 보병대 소속 전투 정찰병이 되었는데, 1944년 어머니의 날에 맞춰 부모님을 뵙고자 휴가를 얻었다. 하지만 보니거트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진저리나도록 이야기했듯이 어머니는 살길 거부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결혼한 당시의 상태로－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로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27]라고 회고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증오하던 전쟁에 아들이 뛰어든 것도 괴로워했으며, 끝내는 보니거트가 집에 도착하기 전날 밤 치사량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어머니의 날 군대에서 휴가를 얻어 귀향했다가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하고 전쟁터로 다시 떠나야 했던 보니거트의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귀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연합군의 드레스덴 폭격을 겪게 된다. 훗날 이를 기억하며 보니거트는 "나는 유럽 역사 최악의 대학살 현장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한 파괴 현장이었다"[28]고 기술한다. 벌지 전투(Battle of the Bulge)에서 전쟁포로로 잡힌 보니거트가 독일의 후방도시 드레스덴으로 끌려가 지하 깊은 곳의 인간 도살장에 갇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순전히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덕분에 공습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보니거트가 겪은 전쟁의 참화는 작품의 서사구조에 그대로 반영된다. 『고양이 요람』에서 존(John)[29]이 모나(Mona)와 함께 방공호로 꾸며진 지하 감옥으로

---

26) John Barth, "Literature of Replenishment", *Essentials of the Theory of Fiction* (Durham: Duke UP, 1988), p. 426.
27) Kurt Vonnegut, *Jailbird: a Novel*. (New York: Dial Press, 2010), p. 11.
28) Allen,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p. 162.
29) 『고양이 요람』의 화자. 자신을 요나(Jonah)라 불러 달라며 부모님은 존(John)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본문에서는 성서의 요나와 구별하기 위해 존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내려가는 부분은 보니거트의 드레스덴 폭격 경험을 패러디 형식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니거트가 깊은 지하에 있는 제5 도살장에 갇혀 있던 덕분에 폭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무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존은 아이스-나인이 유출되어 지구의 모든 물이 몽땅 얼어버리는 바람에 급격히 발생한 괴물 같은 토네이도를 피해 지하 감옥으로 내려간다. "토네이도들이 아이스-나인의 파랗고 하얀 서리를 천지사방에 흩뿌리면서 지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었다. 혹시 어떤 것이 살아 있더라도 갈증이나 기아나 격노나 무관심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This I assumed: tornadoes, strewing the poisonous blue-white frost of ice-nine everywhere, tore everyone and everything above the ground to pieces. Anything that still lived would die soon enough of thirst—or hunger—or rage—or apathy)"(189)라는 묘사는, 아이스-나인이 만들어낸 파국으로 드레스덴에 퍼부어진 폭격이 만들어냈던 장면을 잘 패러디하고 있다. 보니거트가 폭격이 잠잠해지자 지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존도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러나 폭격으로 폐허가 된 드레스덴에 13만 5천구의 시신이[30] 보니거트를 맞이했던 것처럼 존이 돌아온 세상 역시 "생명의 기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다만 세상에 내린 종말의 심판이 흔히 말하는 '불의 심판'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의 심판이 된 것은 일종의 '차이를 둔 반복'이다. 이 모든 사태가 인간성이 결여된 호니커 박사에게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차이를 둔 반복'으로서 훨씬 효과적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거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여 직접 겪은 드레스덴 폭격과,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그 어떤 전통적 서사구조로도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작가 본인이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도,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는 흔히 쓰이는 모험담의 전형을 따르지 못하고 비극적 서사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말로 자기반영의 패러디가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보니거트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당연히 패러디 기법을 이용하면서 기

30) 드레스덴 폭격의 희생자 수는 통계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보니거트의 『제5 도살장』에서 언급하는 수치(219)를 기준으로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 소설의 전형적 특징을 벗어나 묘사된다.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작가의 어머니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보편적으로 그려지는 어머니의 상과는 들어맞지 않게 된다. 이 여성상들이 보여주는 유일한 공통점은 그 어떤 어머니도 능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이다. 보니거트에게 어머니는 어떤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여성상을 실체화하려 들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보니거트의 작품 안에는 무조건 지켜주고 품어주는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부재로부터 오는 공백은 그저 텅 비어있을 뿐이다. 여성상의 보호나 축복 없이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 등장인물이 느끼는 공허함은 『고양이 요람』에서 드러나는 고통으로 잘 묘사되어 있다. 아이스-나인이 유출되어 지구상의 온 생명이 꽁꽁 얼어붙어 죽어버리는 상황이 닥치자, 대지의 여신조차 정말 나쁜 어머니 취급을 받으며 그 존재가치를 상실해버리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어머니 상의 전형성에서 벗어나 있다.

물론 보니거트가 모든 여성상을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거트에게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어머니 말고도 누이인 앨리스(Alice)가 있었다. 보니거트가 “언제나 글을 써서 바치고 싶은 사람이다. 무엇이든 내가 이룬 것이 있다면, 그녀는 그 예술적 성취의 비결이다. 그녀야말로 내 기교의 비밀이다”[31] 라고 할 만큼 자신의 누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앨리스마저 1958년 41세의 나이에 암으로, 그것도 남편이 기차사고로 사망하고 이틀 뒤에, 사망했으며 그 슬하에 아이 셋을 남겨 보니거트가 입양하게 되었다.[32] 어머니에 이어 누이마저 잃게 된 보니거트가 완벽한 해피엔딩을 이끄는 여성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니거트에게 앨리스의 죽음은 인간 존재에 내재된 무작위성에 대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33]

보니거트의 상실된 여성상은 『고양이 요람』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우지 못하거나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로 표현된다. 호니커 박사의

31) Kurt Vonnegut, *Slapstick or Lonesome No More!* (New York: Dial Press, 2010), pp. 16-17.
32)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114.
33)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인 에밀리 호니커(Emily Hoenikker)는 세 아이의 어머니지만 자동차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막내 뉴트(Newton Hoenikker)를 낳다가 죽게 된다. 오로지 과학에만 몰두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호니커의 아이들은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작고 세밀한 모형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적 기질을 보인다. 예술은 인간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호니커 박사가 아니라 에밀리의 특성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밀리는 그 자식들 곁을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 자리를 비워버린다. 에밀리의 죽음 이후 고등학교 졸업도 포기하고 사교생활이라곤 하나도 없이 세 아이--아버지 펠릭스와 동생 프랭크(Franklin Hoenikker), 뉴트--를 어머니처럼 돌본 것은 첫째 딸 앤젤라(Angela Hoenikker)였는데 그녀의 희생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지만 사실 감사받기는커녕 전혀 주목받지도 못한다. 존의 어머니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으며, 존의 부인은 과거형으로 “two wives ago”(1)라고 어떤 시점을 지칭하기 위해 쓰였을 뿐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 소설에서 어머니 상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인물로는 존이 만난 여성들 중 산로렌조에 파견되었던 미국대사 홀릭 민턴(Horlick Minton)의 부인 클레어(Claire Minton)가 있다. 민턴 부부는 매카시즘 정권에 용공분자로 몰려서 파면되었다가 신생국 산로렌조에 대사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존재 자체로 “듀프라스(duprass), 곧 두 사람만으로 구성되는 ‘카라스(karass,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팀)’의 완벽한 사례”로 단정될 정도로 모범적인 부부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듀프라스는 그런 결합으로 태어난 자식들조차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보코논의 설명대로, 클레어 민턴은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는 전형성을 따르는 편이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는 근접하지 못한다. 그녀는 존에게 필립 캐슬이 쓴 책, 『산로렌조－그 국가, 역사, 국민』을 통해 산로렌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었을 뿐, 남편 외의 등장인물과는 그 어떤 감정적 교류도 드러내지 않는다. 또 다른 여성으로는, 노조 체계 등이 확립되지 않아 경영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산로렌조에 자전거 공장을 옮길 생각으로 방문한 크로스비 부부 중 헤이즐 크로스비(Hazel Crosby)도 등장한다. 존과 같은 인디애나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단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게 하는 그녀는 정작 엄마라는 호칭을 별명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다. 어머니 상에 주어질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안배도 두지 않는다. 그녀는 아이스-나인 유출 사태 후에도 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아남은 유일한 여성이 되지만, 생존자들끼리의 연대나 협동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마음 푹 놔요.”(196)라며 응원과 위로를 나눌 뿐, 생명력을 고양시키거나 보존하는 경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긍정적 여성의 잠재력을 지닌 인물로는 18세의 모나 아몬스 몬자노(Mona Aamons Monzano)가 등장한다. 산로렌조 섬의 광고 표지모델로서 존의 눈길을 사로잡아버린 그녀는 “숭고한 혼혈아 성처녀(sublime mongrel Madonna)”(57)로 불리며 산로렌조의 국민적 섹스 심볼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산로렌조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취급되기도 하는데, 존이 대통령직을 받아들여 그녀와 교감하게 되지만 모나는 존과의 관계가 독점적인 것이 되는 것은 거부한다. 관습적으로 그려지곤 하는 뮤즈가 주위의 결정에 순종적이고, 주인공에게 기꺼이 헌신하며 독점적 관계를 맺곤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모나는 뮤즈의 전형성을 벗어난다. 그녀는 아이스-나인 유출사태 이후 존과의 성적 결합을 통한 후손의 생산과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 또한 거부하고 보코논교 신자의 시신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 아이스-나인으로 자살하고 만다. 그녀의 죽음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줄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낭만적인 사랑의 실패를 의미한다.[34] 이로써 존을 비롯한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아이스-나인 유출 이후 살아남은 여성은 인류의 미래가 될 아이를 갖고 낳을 수 있는 시기를 한참 벗어난 헤이즐 크로스비뿐이다. 나머지 생존자인 존과 뉴트는 성적 충동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며 “삶에 대해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 원주민들”(203)처럼 재생산을 포기해버리고, 남성다움을 앗아가는 현실에 절망감을 토로한다. 인류가 번식력마저 상실하게 되어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니거트는 보코논서 제14권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제14권의 제목은 이랬다.
> ‘지난 백만 년의 경험에 비추어, 사려 깊은 사람은 지구상의 인류에게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 · · · · ‘무’ (175)
>
> The fourteenth Book is entitled, ‘What Can a Thoughtful Man Hope for Mankind on Earth, Given the Experience of the Past Million Years?’ · · · · ‘Nothing.’

34)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6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구원의 소망도, 재생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은 곧 인류의 파멸을 예고한다. 보니거트는 어머니를 통해 잉태되고 양육되는 인간이 그 어떤 형태의 어머니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미래를 품을 수 없게 되는 현실을 그려낸 것이다.

보니거트가 어머니에 관해 겪었던 가슴 아픈 경험을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 또는 여성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반영한 것과 같이, 보니거트는 아버지와의 경험 역시 온전하지 못해, 작품에 등장하는 아버지 또는 남성들을 전형적인 이미지로 그려내지 못한다. 모더니즘 문학에서 아버지 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신적 존재이거나 정치적, 유전적, 사회적, 정신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그리고 흔히 소설을 구축하는 핵심 원리로서 아버지 상을 대변하는 인물과의 화해가 다뤄지곤 한다. 그러나 『고양이 요람』에서 보니거트는 아버지나 아버지 상과 평화를 선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직간접적으로 아버지 상에 대립하고 분개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 준다. 이 점에 주목해 그의 소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읽으면, 울분이 가득차고 불행한 오이디푸스(Oedipus)적 긴장감이 드러난다. 보니거트의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 대해 냉혹하고 무관심하고 예측불허이며 곧잘 파괴적인 만큼이나, 그의 신 또한 관심 따위 없는 창조주이며 그의 피조물들에겐 그들이 어떤 선을 넘을 때 벌하는 것 외에는 저만치 멀리 떨어진 채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35] 헨딘(Josephine Hendin)은 『고양이 요람』에 그려지는 절망을 부모의 선물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보니거트의 작중에 나오는 자식들이 항상 살을 에는 듯한 냉혹함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이다.[36] 아버지 상에 대한 보니거트의 자기반영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는 『제일버드』(*Jailbird*, 1979)의 프롤로그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나 자신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인생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미 포기하고 우리의 생활권 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러니까 패배감은 언제나 나의 친구였다.[37]

35) Lynn Buck, "Vonnegut's World of Comic Futilit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3.2(1975): p. 190.
36) Josephine Hendin, *Vulnerable People: A View of American Fiction Since 1945* (New York: Oxford UP, 1979), p. 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보니거트는 원래 『제일버드』에서 “아버지와 내가 천당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써보려고 했다며, 이야기 속에서나마 “아버지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실제 인물 이야기가 으레 그렇듯 이야긴 반대가 되어 버렸다. 천당에선 사람들이 이승에서 살아 본 나이 중에서 아무 나이라도 다시 마음대로 될 수 있는데, 나 자신은 마흔넷이 되기로 한 터에 천당의 아버지가 아홉 살이 되겠다는 바람에 질겁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닥치는 대로 그림을 그려 대고 다 그리면 칭찬해 달라고 졸라대며, 아홉 살인 주제에 애들 말투나 애들 놀이를 좋아하지 않아 개구쟁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어머니는 열여섯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떠맡아야 하는 것에 당혹스럽고 짜증나버린 나머지 기어이 제발 저 하늘에 대고 빌기를, ‘아버지, 철 좀 들라고요’ 소리친다. 보니거트는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해도 아주 쌀쌀맞기만 해서, 이야기 쓰는 걸 중단하고 말았다고 선언하며 소원한 아버지와도, 혹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신과도, 허구적인 화해나 속죄에조차 도달하지 못함을 고백한다.[38]

보니거트는 『고양이 요람』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아버지 캐릭터로 호니커 박사, 브리드 박사(Dr. Asa Breed)를 등장시킨다. 호니커 박사는 과학 지상주의의 선봉에 서서 지식탐구에만 골몰할 뿐, 도덕이나 양심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병적 인격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브리드 박사 역시 과학우월주의자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비양심에 동조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는 사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에게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던 보니거트의 고뇌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로 진화한다. 그는 참전용사에게라면 마땅히 위안이 될 만한 자신의 전쟁영웅적 모습과는 아랑곳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수한 악으로 그려지는 독일과, 도덕적 완전체로서의 미국이라는 단순화된 대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보니거트라는 독일계 이름과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던 부모를 비롯한 친지들의 존재가 보니

37) Vonnegut, *Jailbird*, p. 5.
38) Vonnegut, *Jailbird*, pp. 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거트에게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상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 참여 중에 겪은 군인들 개개인의 악행, 비무장 민간지대였던 독일 드레스덴에 퍼부어진 연합군의 공습은 보니거트의 자아상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보니거트의 작품세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해 보이는 인물, 작중 화자나 작가 본인조차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만일 내가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나 역시 나치당원이 되어 유대인과 집시와 폴란드인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고, 눈더미 밖으로 장화만 삐죽 나온 시체들을 내버려 두고 나 자신은 따뜻한 방에서 고결한 배를 두드렸을 것이다. 세상은 그런 거니까"[39]라고 고해하듯 말한다. 보니거트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는, 『고양이 요람』에서 존이 호니커 박사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들른 묘석 매장에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는 장면에 반영된다. '빈-디트(Vin-dit)'[40]라는 보코논교 용어로 설명되는 이 우연한 순간은, 호니커 부부가 묻혀있는 공동묘지까지 존을 태워 줬던 택시 운전사를 통해 도입된다. 운전사가 자기 어머니의 무덤에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천사 석상에 존의 조상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독일에서 이민 온 사람이 아내와 함께 서부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내가 천연두에 걸려 죽게 되자, 그녀의 무덤에 세우려고 천사 석상을 주문하지만 강도를 당해 석상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비석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자신의 성임을 알아본 순간, 존은 강렬한 충격에 빠져 "순간 속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헤매는 남자들과 모든 헤매는 여자들과 모든 헤매는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52) 환상을 보게 된다. 자신의 조상이 적국이자 악의 축인 독일 출신이었으며, 과학 문명의 상징인 일리엄에 들러 죽었다는 사실은 작가가 마저 표현하지 않은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니거트가 자라온 환경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영향, 그리고 전쟁의 경험은 그의 작품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글은 간결하고 직설적인 동시에 유머를 놓치지 않게 되었지만 뼛속 깊이 비관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이는 『고양이 요람』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작가 본인의 부모가 그러했듯이 그

39) Kurt Vonnegut, *Mother Night* (New York: Dial Press, 2009), p. vii
40) 빈-디트라는 용어는 갑작스럽고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보코논교 쪽으로, 즉 전능하신 하느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나에 대해 대단히 정교한 계획들을 마련해두었다는 믿음 쪽으로 밀치는 것을 의미한다. (p. 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어떤 어머니 상, 아버지 상도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이 그러하듯 사랑받지 못한 자식의 음울함이 작품 전체에 녹아있다. 또한 작가 본인이 전쟁에서 경험한 끔찍했던 상황처럼, 신의 구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 전쟁을 초래하는 병적 인격들 때문에 일어나는 파국으로 끝을 맺고 있다. 자전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작품의 이런 면면들이야말로 자기반영 패러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과학문명의 패러디

사이드(Edward W. Said)는 모든 예술은 특정의 담론이고, 또 모든 예술은 예술의 역사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적인 맥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에, 모든 텍스트들은 심지어 패러디된 텍스트들조차, 어느 정도 '세속적'이고, 또 이들은 사회의 세계, 인간의 삶, 그리고 역사적 순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런 것들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1] 마찬가지로 문학과 작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실천한 보니거트는 『고양이 요람』에서 실존하는 인물과 사건 등을 패러디하는 방식을 통해 과학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그가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의도를 작품 밖에 깔린 그의 삶까지 고려해 해석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고양이 요람』의 존은 최초의 원자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1945년 8월 6일, 미국 측 핵심인물들의 행적을 소개하는 『세상이 끝난 날』(*The Day the World Ended*)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첫번째 원자탄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사람인 펠릭스 호니커 박사의 이야기를 수집하고자 그의 세 자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그가 대부분의 연구를 했고 그 자녀들이 성장기를 보낸 뉴욕 주 일리엄으로 향한다. 사실 브리드 박사와 호니커 박사가 일했던 제너럴 단조주조회사(General Forge and Foundry Company) 자체가 보니거트가 근무했던 '발명왕' 토마스 A. 에디슨(Thomas A. Edison)의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rporation)를 패러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종전 후 바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시카고 대학 인류학 석사 과정을 포기하고 뉴욕 스키넥터디로 이사해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홍보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다. 보니거트가 이 회사에 얼마나 염증을 냈는지 지아논(Richard Giannone)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보니거트)가 보기에, 이득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동기는 그저 순수한 과학을

41) Edward W. Said,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3), p. 4. (Hutcheon, p. 163, 재인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위한 감상적인 헌사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직업 상의 입신을 위해 희생되었고, 연구는 그 필요성이나 바람직함이야 있든 없든 이뤄졌습니다. 그는 도덕적 공백에서 기술이 개발되는 걸 목도한 것입니다.[42]

보니거트가 지켜본 과학기술 개발의 현장에서 도덕성이나 인간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한 폐해 또한 낱낱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호니커 박사가 속했던 제너럴 단조주조 회사가 있어 과학문명의 표상이 되는 일리엄을 그려내는 것으로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의 패러디를 시작한다. 후에 존이 향하게 되는 산로렌조와 일리엄을 두고 지아논(Richard Giannone)은 두 장소의 대조점과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일리엄의 풍족함은 정신적 빈곤에 대한 보상이다; 산로렌조는 물질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정신성을 내세운다. 존은 양 집단 모두에서 인간조건에 대한 개선에의 지향은커녕 이해하는 것조차 공허함을 배우게 된다.[43]

호니커 박사를 감독하던 제너럴 단조주조 회사 연구소 부사장 브리드 박사는 과학문명의 최대수혜자로, 사회 유지 수단인 과학 신화의 부역자를 표상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존은 브리드를 인터뷰하기 전날 들렀던 술집에서 만난 창녀와 바텐더를 통해, 정작 프랭크는 졸업하지 못한 일리엄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브리드 박사가 호니커 박사 대신 숨을 헐떡이며 나타나서 축사를 했던 이야기를 듣는다. 그때 그는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도 과학적이지 못하고 미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과학이 언젠가 인생의 근본적 비밀(the basic secret of life)을 밝혀낼 거라고” 했지만 뒤이어 이 일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던 바텐더가 “그 비밀이라는 것이 ‘단백질’”이라고 썼다는 기사를 봤다며 브리드 박사의 발언을 희화화한다(17-18). 영어단어 life의 의미가 생명과 인생, 목숨 등 다양하단 점을 이용한 말장난(pun)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단백질이 생명체 구성의 비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람 인생의 근본적 비밀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아가야만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혹은 생명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둔다는

42) Richard Giannone, *Vonnegut: A Preface to His Novels* (Port Washington, NY: Kennikat Press, 1977) p. 6.
43) Giannone, p. 6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점에서, 인간소외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거트는 브리드 박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순수한 연구'라는 것이 과연 도덕적 공백을 합리화시키는지에 대한 비판과 회의감을 브리드 박사의 아들이 느끼는 좌절을 통해 전한다. 바텐더의 입을 빌어 전해지는 '폭탄의 날'에 관한 일화 속에서 과학기술이 군사기술로 화하는 순간 연구는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인간을 위하기는커녕 해하게 된다는 점이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 "과학자가 연구하는 무엇이나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나요. 자기는 더는 정치인들의 제기랄 전쟁 놀음을 돕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이름이 브리드라고 했죠. 그 제기랄 연구소의 대가리하고 무슨 관계라도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작자 말이 관계도 보통 관계가 아니라대요. 연구소 대가리의 제기랄 아들이라는 거였죠." (19)

> '(he) said anything a scientist worked on was sure to wind up as a weapon, one way or another. Said he didn't want to help politicians with their fugging wars any more. Name was Breed. I asked him if he was any relation to the boss of the fugging Research Laboratory. He said he fugging well was. Said he was the boss of the Research Laboratory's fugging son.'

아버지들의 인간성 부재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식들이 인간성을 추구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연구소 소장의 아들은 원폭 투하 후에 묘석 매장을 하는 에이서의 동생 마빈 브리드(Marvin Breed)에게 가서 돌 깎는 일을 하고 싶다며 로마에서 조각가로 지낸다. 과학자의 자식들이 예술성을 보이는 것은 호니커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앤젤라는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프랭크는 축소모형을 만들며, 뉴트는 그림을 그린다.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자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브리드 박사와 호니커 박사의 후손들이 과학 대신 인간성의 총집체인 예술에 몰두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과학 맹신에 대한 비판이 된다.

보니거트는 에이서 브리드를 통해 과학문명의 도덕성 판단부재에 대해 계속 비판한다. 브리드 박사는 과학이 가져오는 발전과 행복을 찬양하고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것은 "순수한 연구"일 뿐이라면서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식과 진리와 동일시한다. 동시에 "새로운 지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품이니까 써먹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진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부유해지는 것이오"(29)라고 말해 과연 연구가 순수한 것인지 오히려 의문을 품게 한다. '순수한 연구'에 대한 회의는 보니거트의 형 버나드(Bernard Vonnegut Jr.)의 인공강우 연구에 관한 이야기로 더욱 힘을 얻는다. 기상학자인 버나드는 구름에 씨앗을 뿌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연구를 이뤄냈고 인류에 공헌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이 발명품은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베트남 북부에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알게 된다. 형 버나드의 순수했던 연구마저 정치권력이 악용하면 군사과학으로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목도한 보니거트는 과학의 순수한 의도라는 것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

또한 에이서 브리드는 순수하지 못하게, 금전관계에 있어서도 공평하지 못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 앤젤라는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세상이 아버지를 등쳐먹었다고 투덜거렸다. "아버진 정말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분께 아주 조금밖에 주지 않았어요. · · · · 제너럴 단조주조 회사는 아버지의 연구로 얻게 된 특허 한 건당 45달러를 상여금으로 주었어요. · · · · 45달러라니! 그게 어디 쓰이는 특허였는데요! · · · · 브리드 박사 연봉이 아버지보다 1만 달러나 더 많은 걸 아세요?" (126)

> Angela, when she got a few drinks into her, complained of how the world had swindled her father. 'He gave so much, and they gave him so little.' · · · · 'General Forge and Foundry gave him a forty-five-dollar bonus for every patent his work led to,' · · · · .'Forty-five dollars-- and just think what some of those patents were for!' · · · · 'You know Dr. Breed made then thousand more dollars a year than Father did?'

순수한 연구가 사람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응당 그 결과를 이뤄낸 과학자에 대한 대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했을 것인데, 도덕성이 부재한 과학은 금전적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게다가 인간성이 부재한 과학자는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표현할 줄도 몰랐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산업은 철저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서 브리드는 과학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파괴성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다. 브리드는 화자에게 연구소 자리가 옛날 공개사형장이었음을 밝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며 26명을 죽인 사형수가 죽으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에피소드는 과학의 파괴성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비판이다.

> “현재 연구소가 있는 바로 그쯤에 울을 친 형장이 있었어요. 나라 전체를 위해 공개 교수형을 집행하던 곳이었소.”
> “1782년 스물여섯 명을 살해한 남자가 처형되었소 · · · · 그는 교수대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 · · · 그자는 전혀 뉘우치지 않았어요.”
>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 “생각해봐요!” 브리드 박사가 말했다. “스물여섯 사람이 그의 양심에 올라타고 있었소!”
> “마음이 비틀거리겠죠.” (21)

> ‘Just about where the Research Laboratory is now was the old stockade. That was where they held the public hangings, too, for the whole country?.’
> ‘There was one man they hanged here in 1782 who had murdered twenty-six people · · · · He sang a song on the scaffold · · · · He wasn’t sorry about anything.’
> ‘Some people are like that.’
> ‘Think of it!’ said Breed. ‘Twenty-six people he had on his conscience!’
> ‘The mind reels,’ I said.

26명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하여 비난하고 있는 그는 수천 수만을 죽인 원자탄을 만든 과학자 에이서 브리드이다. 하지만 에이서 브리드는 그의 감독 아래 펠릭스 호니커 등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실제로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7만여 명을 살상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26명을 죽이고도 태연한 사형수의 이미지는 아이러니하게 그걸 비판하는 과학자 브리드에게로 확장되고 있다.

에이서 브리드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많이 드러낸다. 펠릭스 호니커 박사의 부인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였던 에밀리 호니커에 대한 언행에서 그의 도덕성이 의심된다. 호니커 부부의 묘지를 방문했다가 묘석매장의 마빈 브리드(Mavin Breed)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애초에 동생 마빈이 좋아하던 에밀리를 형인 에이서가 빼앗아 둘이서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 결국에는 펠릭스 호니커 역시 에밀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에이서 브리드의 입장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생각하면 에밀리를 배신자 취급하고 애증의 대상으로 삼을 만도 한데, 에이서는 에밀리에게 그 어떤 증오나 분노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에밀리를 언급하는 그의 태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회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에이서는 존에게 호니커 박사가 어느 날 아침 일리엄의 도로 한가운데 차를 버려두고 가버렸던 이야기를 해주다가 에밀리의 이름을 꺼낸다. 그런데 옛 직장동료의 아내 이름을 말하며 '입술을 핥고는 꿈꾸는 듯한 표정을'(22) 짓는 데에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다. 그 자동차를 끌고 집에 돌아가야 했던 에밀리에 대해 "집으로 가는 도중 심한 충돌 사고를 당했소. 그 바람에 골반에 이상이 생겼고 · · · · 그녀가 뉴트를 낳고 죽은 것도 그 때문이오"라고 전하면서 "눈을 감고 핸들을 잡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23)는 장면에서는 브리드 박사가 연민에 가득 차서 괴로워한다고 받아들여진다. 뿐만 아니라 에이서는 뉴트가 난쟁이라는 사실에 관해서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뉴트는 우산꽂이 정도의 키'라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말한다. 게다가 호니커의 다른 두 자녀, 프랭크와 앤젤라의 장애 여부를 물었을 때는, "물론이오! 실망시켜 드려 안됐지만, 과학자들도 다른 사람들의 자식과 똑같은 자식을 낳아요"(29)라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옛 직장동료의 자식들에 대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과격한 그의 반응과 펠릭스 호니커가 인간적인 요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캐릭터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브리드가 호니커의 모든 자식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20)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브리드 박사가 우두머리로 있는 제너럴 단조주조 회사의 일리엄 공장 연구소에서 마주치는 여성들은 과학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브리드처럼 과학우월주의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대신 브리드와 대조적으로 과학에 대해 인간적 반응을 보이며, 과학이 고려해야 마땅할 인간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이 부수적 인물들은 보니거트 본인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근무하던 때의 경험이 반영된 패러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철에 브리드가 호의를 보이느라 우연히 말을 섞게 된 '특징 없는 보통여자'(23) 프랜신 페프코(Miss Francine Pefko)는 자신의 무지만을 탓한다. 자기가 담당하는 박사의 말을 받아쓰기할 때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연구소 현관 홀에 늘어선 교육용 전시물들의 원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의 눈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과학도 이해할 수 없는 “마술이에요 · · · ·과학자들은 너무 많이 생각해요 · · · · 박사님들은 모두 넘 많이 생각해요”(26)라고 말한다. 하지만 브리드는 “생각하는 양(quantity)은 다 비슷해요. 단지 과학자들은 사물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할 뿐이지”(24)라고 말한다. 사실상 사교적인 발화로서 진심을 담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음에도 과학자들의 도덕적 사고가 부재하다는 진실을 지적한 것이다. 페프코와 브리드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나갔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여자는 과학우월주의자를 대하는 인류의 대표자로 제시된다.

>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브리드 박사를 뜯어보고는 만면에 비난하는 표정을 있는 대로 드러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다. 그 순간, 그녀라면 거의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손색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4)

> She turned to examine Dr. Breed, looking at him with helpless reproach. She hated people who thought too much. At that moment, she struck me as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for almost all mankind.

보니거트는 여기에서 누구나 생각하는 양은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페프코와 이 여자를 가장 보통의 인간적인 존재로 제시한다. 그 대칭점에는 정작 중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과학자들을 세워놓는다. 이 대조를 통해 보니거트는 과학자들이 반드시 고심해 봐야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 인간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이 여자를 대변인 삼아 브리드 박사를 뜯어보고 만면에 비난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묘사하여 브리드 박사를 포함한 인간성을 상실한 과학자들을 극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브리드 박사의 비서 미스 나오미 파우스트(Miss Naomi Faust) 또한 과학문명의 맹점을 지적하고 인간성을 요구하는 캐릭터다. 이름부터 파우스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괴테(Goethe)부터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가들이 파우스트 전설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만들어 왔다. 공통적으로 다뤄지는 대략의 작품 내용은 박식한 학자 파우스트가 속세적인 지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금지된 지식을 자신의 영혼과 교환하는 계약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악마와 맺는다는 것이다. 미스 파우스트는 브리드 박사의 비서로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초콜릿 바를 나누어 주는 것도 챙겨주며 그의 인간성을 메워주는 노력을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존에게 호니커 박사에 대해 말해주며 “사람에게 어떻게 진실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이에요”(38)라며 과학문명의 맹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호니커 박사에게 절대적으로 진실한 것의 예시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꺼내자 “‘하느님이 뭐지요? 사랑이 뭐지요?’”(39)라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호니커의 발언에 주눅들지 않고 “하느님은 정말로 사랑이세요. 호니커 박사님이 무슨 말을 하셨든 상관없이요”(39)라며 진짜 파우스트의 종말을 따라가는 호니커 박사의 반대편에 서서 과학만능주의를 비판한다. 따라서 이 이름부터가 영혼의 중요성을 도리어 강조하는 캐릭터로서 미스 파우스트가 패러디되고 있다고 보게 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미스 파우스트와 함께 있다가 만난 엘리베이터 운전자 노울스(Lyman Enders Knowles)도 과학문명을 비판하는 것으로 눈길을 끄는 캐릭터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를 떠들며 자기 발언에 도취되면 제 엉덩이를 움켜잡는, 미친 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으나 보니거트는 이 사람의 입을 빌어 과학맹신주의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 여기 이곳은 리-서치 하는 데요. 리-서치는 다시 본다는 뜻 아니오? 옛날에 찾았던 것이 어디로 가버려서 다시 찾고 있다는, · · · · 다시 찾으려는 건 뭐지? 누가 뭘 잃어버렸는데? (42)

> “This here’s a re-search laboratory. Re-search means look again, don’t it? Means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found once and it got away somehow, and now they got to re-search for it! · · · · What is it they’re trying to find again? Who lost what?”

노울스의 발언은 연구(research)라는 단어의 접두사와 어근을 가지고 벌이는 언어유희에 가깝다. 하지만 보니거트는 노울스를 통해 지식을 늘리는 것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는”(29) 순수한 연구를 주장하며 과학신화에 헌신하는 브리드가 이끄는 연구소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보니거트는 자신이 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느꼈던 점들을 연구소의 비연구 인력인 보통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며 과학우월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미스 파우스트와의 대화에서 드러나듯 파우스트처럼 지식을 위해 영혼이라도 팔아버린 양, 하느님이나 사랑에 대해 무지한 호니커 박사는 인간에 무관심하다. 보니거트는 세상을 위험하고 혼란스런 곳으로 만드는 장본인으로 '병적 인격(psychopathic personality)'을 주목하는데, 이 병적 인격을 표상하고 있는 호니커 박사의 특성은 노벨상 수상자 어빙 랭뮤어(Irving Langmuir)를 모델로 한다. 한 인터뷰에서 보니거트가 직접 밝히기를, 랭뮤어는 보니거트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있었으며 그만둘 때까지도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니거트의 기억에 랭뮤어는 정신이 다른 데 팔려있는 사람이었으며, 아이스-나인을 착안해 내는 데에도 기여했다[44].

> 그(랭뮤어)는 한번은 부인이 집에서 아침을 차려주고 나니까 접시 아래 팁을 깔아놨다더군요. 내가 그걸 (『고양이 요람』에) 집어넣었소. 그래도, 그가 한 기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스-나인 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죠. 실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얼어있는 물의 형태 말입니다.[45]

덴마크의 과학자 보어(Niels Bohr, 1885-1962) 역시 호니커 박사의 패러디 모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소설이 나오기 1년 전인 1962년에 보어가 사망하여 주의를 끌었기 때문이다. 1922년 원자론에 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받은 바 있는 보어는 1943년 나치의 마수를 피해 코펜하겐을 탈출할 때에, 보온병에 넣어뒀던 중수는 잊어버리고 맥주병을 갖고 영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어 미국의 원자탄 제조에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오게 닐스 보어(Aage Niels Bohr)는 1975년에 원자핵 물리학으로 노벨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하였으며, 그의 동생 해럴드 오스트 보어(Harald Aust Bohr, 1887-1951) 또한 저명한 수학자다. 따라서 이 닐스 보어를 모델로 삼아 원자탄의 아버지 호니커 박사가 탄생했고, 오게 닐스 보어는 프랭크 호니커가

44)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59.
45) Allen,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p. 182.
46) "A Man of the Century", *Time*, LXXX(November 30, 1962), pp. 56-5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된 것으로 추론된다.[47]

닐스 보어나 랭뮤어가 학문적 측면 밖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보니거트가 그들을 패러디해서 그려낸 호니커 박사는 인간 대부분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물이다. 예를 들어 돈이나 자동차나 권력, 옷가지 그 밖에 보통 사람이라면 필요한 것들 말이다. 호니커 박사는 지식의 실질적인 생산자임에도 그 가치가 돈으로 돌아오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 내버려 둔다든지, 옷가지도 혼자 챙길 수 없어서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딸의 수발을 받아야 하고, 근무지 점심식사에서조차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식사를 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호니커의 일생에 걸친 과학에의 헌신은 부정할 수 없다. 마빈 브리드는 호니커에 대해 '해라곤 끼칠 줄 모르며 점잖은 인물'이라고 평한다. 심지어 파리 한 마리 죽인 적이 없고, 돈과 권력과 멋진 옷과 자동차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서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되게 훌륭했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부분만 빼고는 예수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죄했다'(48)라는 세상의 평을 전한다. 하지만 마빈 브리드는 호니커를 성인으로 묘사하면서도, 치명적인 원자폭탄의 아버지를 어찌 무죄라 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는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를 성인이라고 일컫는 세간의 평가와 과연 그 등식이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사이의 모순, 그리고 성인과 죄인이라는 대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호니커 박사는 과학의 원리에 헌신한다. 호니커 박사가 신경쓰는 것은 과학적 진실뿐이다. 호니커 박사는 수만 명의 죽음을 초래한 원자폭탄과 온 세상의 종말을 일으키는 아이스-나인을 발명하고도 실뜨기 놀이나 하고 물을 얼렸다 녹였다 하며 아이들한테 으스대기나 한다. 그에게는 영적 세계의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성이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 호니커 박사라는 인간 자체에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것처럼 공백상태인 것이다.

그렇다고 세속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닌 호니커는 가족마저 돌볼 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듯하다. 호니커 박사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사진이 든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부인도 자녀도 또 자기 자신의 사진도 아

47) 신인철(1990), pp. 65-6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닌 작은 전쟁 기념비다. 전쟁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비 때문에 그 사진을 찍었던 것이라 존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재판소 잔디밭에 포탄이 쌓여 있는 것을 보려고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이 결국 아이스-나인 개발의 단초가 된다.

> “이제 다시 재판소 잔디밭의 포탄이나 상자 속의 오렌지를 생각해보시오.” · · · · 맨 아래층을 이룬 포탄들이나 오렌지들의 패턴이, 그 위로 각 층이 쌓여 고착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 · · · “지구상에서는 물에게 · · · · 형성할 방법을 가르쳐줄 씨앗이 없어서 물이 항상 아이스-원으로 어는 것이라면 어떻겠소? · · · · 아이스-나인 정도로 부를 수 있는 결정 형태가 있다는 것이오 · · · · 녹는점이 일테면 화씨 100도, 아니 더 적절하게 130도(약 섭씨 54도)라고 해요.” (32-33)

> ‘Now think about cannon balls on a court-house lawn or about oranges in a crate again.’ · · · · he helped me to see that the pattern of the bottom layer of cannon balls or of oranges determined how each subsequent layer would stack and lock. · · · · Suppose water always froze as *ice-one* on Earth because it had never had a seed to teach it how to form *ice-two, ice-three, ice-four* · · · · ? · · · · ‘that there were one form, which we will call *ice-nine* · · · · a melting point of a one hundred and thirty degrees.’

보니거트는 보통 가족사진을 둘 곳에 포탄 적재방식이 찍힌 사진을 두는 호니커 박사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고려사항은 과학 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호니커 박사가 포탄을 쌓아두는 방식들을 보고 물분자의 배열방식을 바꿔보겠다는 발상을 얻어 아이스-나인을 착안했다는 점을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복선은 아이스-나인의 단서를 발견한 순간 이 가공할 물질이 초래하는 결말을 품고 있으며, 사랑의 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직원들이 부르는 노래가사로 암시된다.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아”의 가사를 바꿔 부른 것이다. 원래 가사는 “온 세월의 희망과 두려움이 오늘밤 그대 안에서 만난다”인데, “온 세월의 희망과 두려움이 오늘밤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차이를 둔 반복 즉, 패러디가 이루어진다. 아이스-나인 자체가 상징하는 ‘희망과 두려움’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아이스-나인의 실재를 말하는 것이자, 그것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무엇이라는 점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존 역시 아직 아이스-나인의 실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에서조차 굉장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회의적이다 못해 꿈을 꿀 정도로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반응은 앞서 언급한 보니거트의 과학자 형제 버나드의 경험이 영향을 끼친 듯하다. 보니거트에게는 과학자가 순수한 의도로 발견한 지식조차도 정치세력의 손에 들어가면 악용될 것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은 것이다. 따라서 아이스-나인의 존재 자체로 본질적인 과학의 딜레마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연구라는 것이 그 의도나 목적에 대한 고민 혹은 의심을 품지 않고 결과를 냈을 때, 그 결과는 얼마나 선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작품 전반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호니커 박사가 의도나 목적에 대한 고민도 없이 과학 연구에만 몰두한 동안 그의 인간성 부재는 그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의 부인은 “사랑과 이해의 부족으로” 사고를 당하고 그 몸으로 출산을 하다 죽는다. 호니커 박사는 아내의 무덤에 묘석을 세울 생각조차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부인이 죽은 지 1년 남짓 되었을 때에야 아이들 셋이 직접 묘석을 산다. 아버지의 노벨상 상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골라 어머니의 묘석으로 삼고 시를 쓰고 손도장을 찍어두고 자주 들러 꽃다발을 바치며 호니커의 아이들은 인간적이지 못한 아버지에게선 도무지 느낄 수 없는 위안을 어머니의 무덤에서 얻고자 한다. 호니커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비석으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을 세운 반면에, 호니커 박사의 묘비는 “각 변이 40센치인 대리석 입방체”일 뿐, 그를 추억하고자 하는 가족의 다른 노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보니거트가 호니커 박사를 통해 전하는 과학신화에 대한 비판은 그의 죽음에 대한 묘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아이스-나인과 관련된 호니커 박사의 사망 정황은 아이스-나인의 실체가 드러나고서야 드러난다. 아이스-나인으로 인해 파파 몬자노(‘Papa’ Monzano)가 자살하고 그의 주치의 폰 쾨니히스발트(Dr. Schlichter von Koenigswald)의 사고사가 있고 난 후에야 호니커 아이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일리엄에서 브리드를 취재하던 날처럼, 사랑의 날인 크리스마스가 등장한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노벨상 상금으로 마련한 별장에 방문한 호니커 박사는 아이스-나인을 두고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힌트를 주며 무언지 맞혀보라고 졸라댄다. 자식들이 ‘뇌를 늘이는’ 걸 못해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혼자 부엌에서 물과 단지와 냄비와 아이스-나인을 갖고 웅덩이 놀이를 한다. 그러곤 “잠시 쉬었다가” 그대로 죽어버린다. 심지어 그의 죽음은 개의 죽음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전하려던 뉴트가 그제야 발견할 만큼 관심을 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고,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은 그를 애도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아이스-나인을 처리하고 분배하고 은닉하는 데에만 집중한다. 호니커의 아이들은 그 노인네가 가르쳐준 '뇌 늘이기'를 하여 아이스-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호니커 박사가 그러하듯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 호니커 박사가 윤리에 대해서는 가르쳐줄 수조차 없는 인물이었다는 점이 그가 아이들에게 남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호니커 박사의 죽음 이후 아이스-나인을 호니커의 세 자녀들이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그 자식들을 통해 그의 물리적 정신적 유산을 살펴보는 것은 호니커 박사로 대변되는 과학문명에의 비판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계이다. 보니거트 자신이 일부 반영된 호니커의 아들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아버지 역시 돌봐주는 주체가 아니라 돌봐줘야 하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가운데 자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의 결핍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 셋 모두 사랑이나 자기가 속할 자리를 아이스-나인으로 사버리고 만다. 세상이 끝장나 버린 것이 단지 한 아버지가 제 자식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48] 하지만 이 아이들이 거래를 통해 획득한 것들은 대가로 치렀던 아이스-나인의 시작과 끝이 그러하듯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하지만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다.

막내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린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집안을 돌봐야 했던 앤젤라는 두 남동생과 아버지를 두고 아이가 셋이라 말할 정도로 가족에 헌신한다. 그에 따른 모든 고통은 클라리넷을 통해 승화해낼 뿐이었다.

> 나는 아버지 뒷수발에 인생을 다 바쳤어요. 연구소까지 차로 출퇴근시키고, 추운 날은 몸을 감싸드리고 더운 날은 풀어드리고, 식사를 차려드리고 공공요금을 내고요. (84)

> I'd given my whole life to taking care of Father, driving him to and from work, bundling him up when it was cold, unbundling him when it was hot, making him eat, paying his bills.

48) Peter J. Reed, *Kurt Vonnegut, Jr.* (New York: Warner, 1972), p. 14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앤젤라는 인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능력조차 부재한 아버지 호니커 박사의 뒷바라지를 몽땅 떠안게 된다. 그 대가로 자신의 젊음과 기회를 몽땅 날려버리고 보호자의 굴레에 얽매이고 말았던 것이다. 앤젤라는 키가 6 피트(약 180센티미터)를 넘는 데퉁스런 거구였던 것으로 그려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하여 집안에 갇혀 유일한 즐거움인 클라리넷을 통해 모든 고통을 승화시키며 아버지 뒷수발에 인생을 다 바쳐 살아온 끝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자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 한 명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뉴트 외에는 말상대 하나 없었던 그녀에게 갑자기 남편감이 나타났다. 그 사람과 2주 만에 결혼해 쌍둥이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 때면 술에 취해 있고 대개는 온통 립스틱투성이었다. 앤젤라는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해야만 했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하던 남편과 가족을 샀지만 그들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이다.

막내인 난쟁이 뉴트의 기억 속에서, 폭탄의 날 여섯 살 먹은 그에게 다가와 생전 처음으로 놀아주려 했던 호니커 박사는 뉴트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추악한 것이었다.

> 아버지의 땀구멍들이 달의 분화구만큼이나 커 보였습니다. 두 귀와 콧구멍에는 털이 가득했고요. 담배 연기에 찌든 몸에서는 지옥 아가리에서 나는 것 같은 악취가 났습니다. 그처럼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는 내가 본 중에 가장 추한 동물이었습니다. (9)

> 'His pores looked as big as craters on the moon. His ears and nostrils were stuffed with hair. Cigar smoke made him smell like the mouth of Hell. So close up, my father was the ugliest thing I had ever seen.

뉴트는 이 날의 기억 때문에 아버지를 자신에게 결핍된 어떤 존재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하지만 뉴트의 경우에도 그의 유산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에 있어서는 앤젤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키 120센치 난쟁이라는 타고난 결핍을 딛고 의사가 되고자 준비하였으나 결국 낙제하고, 난쟁이 무용수에게 반해 밀월여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가 23살 아닌 42살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러시아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앤젤라와 뉴트는 곁에 있을 사람을 원했고, 그 자리를 채워주겠노라 다가왔던 이들은 그저 아이스-나인을 노리고 있었으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다. 마빈 브리드에게는 호니커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씨 곱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기억되는데, 그에 반해 뉴트가 아버지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특히 그것이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날에 대한 것인지라 더욱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호니커 박사의 내면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에밀리에 대조되는 펠릭스의 인간성, 혹은 인간성의 부재는 뉴트의 편지에서 더 드러난다.

> 사람들은 아버지란 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어머니에 대해 무언가 여쭈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10)

> People couldn't get at him because he just wasn't interested in people. I remember one time, about a year before he died, I tried to get him to tell me something about my mother. He couldn't remember anything about her.

호니커 박사의 영혼은 인생의 배우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릇인지라, 원자폭탄이 초래할 그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한다. 보니거트가 집요하게 보여주듯이 인간성이 부재한 호니커에겐 죄의식은커녕 죄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 미국이 폭탄 하나만으로 도시 하나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뒤, 한 과학자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과학이 이제 죄를 알게 되었군."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대꾸하신 줄 아십니까? 이러셨답니다. "죄가 뭐죠?" (13)

> After it was a sure thing that America could wipe out a city with just one bomb, a scientist turned to Father and said, "Science has now known sin." And do you know what Father said? He said, "What is sin?"

호니커 박사의 이러한 대답이야말로 도덕성의 부재와 인류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이는 기독교에서의 전통적인 신의 이미지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다. 인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독교적 관점의 신에 대한 대척점에서, 보니거트의 작품들 안에 등장하는 신은 무관심하고, 게으르며, 잔인하고 억압적으로 그려진다. 한 대화에서 언급했듯이, 호니커는 너무도 직업적인 나머지 인간의 미덕에 대한 감각 자체를 잃고 말았다. 과학자가 자신만의 세계에 매몰되어 버리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마는 것이다.[49] 보니거트는 호니커 박사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불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과학의 무책임한 발전이, 인류의 행복 아닌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과학신화에 대한 비판을 전하고 있다.

호니커의 아이들이 결핍을 해소하고자 아이스-나인을 거래품목으로 활용해버리고, 그 여파로 아이스-나인을 세상에 드러내 버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호니커 박사가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무책임과 무관심이 모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프랭크의 발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나도 자리를 샀어. 누나가 그 바람둥이 남편을 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뉴트가 러시아 난쟁이와 케이프코드에서 보낼 한 주를 산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174) 펠릭스 호니커를 가장 닮은 것으로 꼽히는 프랭크에 대해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이 결여된 점이 묘사된다. 프랭크가 일했던 모형공방의 주인 재크는 프랭크는 가족이라는 것의 온기를 느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일 뿐이라고 대변해주지만, 프랭크는 아버지 호니커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와중에 관이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공동묘지를 나섰던 것이 목격된다. 프랭크는 부자 간에 인간적인 교류는 거의 없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모델로서만 아버지를 바라봤던 것으로 보인다. 호니커 박사의 둘째이자, 거구인 앤젤라나 난쟁이인 뉴트와 달리 두드러지는 신체적 결핍이 묘사되지 않은 프랭크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며, 따라서 거래하는 대상도 사람이 아니다. 프랭크는 비밀요원 X-9이라고 불릴 만큼 모형 가게에만 들락거리며 학교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모형가게 사장의 부인이랑 어울리며 그 탓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우연의 연속으로 도착한 산로렌조에서 산로렌조 공화국 과학진보부 장관 프랭클린 호니커 소장이 된 프랭크는 사실 산로렌조의 권력자 파파 몬자노에게 아이스-나

49) Allen,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p. 23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을 넘기고 자리를 산 것이다. 호니커 아이들은 사실 에이서 브리드의 자식들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프랭크는 유독 펠릭스 호니커의 발명가적 기질과 인간적이지 못한 면을 많이 닮았다.

> 원자폭탄이 투하되던 그날은 · · · · 형이 · · · · 스푼으로 각종 벌레를 유리병에 떠 담아 싸움을 시켰습니다. · · · · 녀석들은 유리병을 계속 흔들지 않으면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프랭크 형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병을 흔들고 또 흔드는 일 말입니다. · · · · 형은 사람들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면 늘 그렇게 대답했지요. 항상 '실험중'이라고 했어요. (10-11)

> On the day they dropped the bomb · · · · Frank had a tablespoon and a Mason jar. What he was doing was spooning different kinds of bugs into the jar and making them fight · · · · They won't fight unless you keep shaking the jar. And that's what Frank was doing, shaking, shaking the jar · · · · That's what Frank always used to say when people asked him what he thought he was doing. He always said, "Experimenting."

곤충들을 한데 쓸어 담아 본인의 유희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존경쟁을 자극하면서 '실험중'이라고 답하는 프랭크의 모습은 호니커 박사가 하던 양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프랭크는 아버지가 실은 본인의 흥미를 추구하는 것 뿐이면서, 과학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거나 심지어 대가를 받는 것을 보고 자랐다. 프랭크로서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도덕성이란 것은 알지도 못했을 것이며 나아가 어떤 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하거나 의심을 품기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프랭크는 아버지를 닮고자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프랭크는 학문적 혹은 과학적 업적에 있어서 호니커 박사를 따라갈 능력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유산 아이스-나인 덕분에 아버지만큼 인정받는 기회를 얻는다. 그는 산로렌조에서 아이스-나인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아 장관급 인사가 된다.

파파 몬자노 사후, 원래 대통령으로 지명되어 있었던 프랭크가 존에게 그 자리를 떠넘기는 것은, 자기 아버지 호니커 박사처럼, 그 어떤 책임도 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50] 아버지가 그랬듯이 도덕성이나 시스템의 방향성, 자기 행위의

50)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6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프랭크는 학교보다는 모형가게에서 작품을 만드는 데, 그리고 모형가게 주인 잭의 부인과 벌이는 유희에만 몰두해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잭의 부인은 존이 산로렌조로 향하기 전에 이미 잭을 떠나버렸으며 프랭크가 대통령의 여자로 지목되어온 모나에 대한 미련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만만한 인물을 물색해 대통령직을 떠넘기는 데 급급한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래도 산로렌조에서 입지를 확보한 프랭크가 잭의 부인을 잊지 못하고 불러들인 것이 아니었나 추측되는 바, 프랭크의 도덕성 부재를 추궁하는 단서로 적절하기 때문이다.

> 나는 내가 대장이 되기로 동의함으로써 프랭크에게 자기가 그 무엇보다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자유를 주었음을 분한 마음으로 깨달아야 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무는 회피한 채 명예와 물질적 쾌락을 누릴 자유 말이다. (161)

> I realized with chagrin that my agreeing to be boss had freed Frank to do what he wanted to do more than anything else, to do what his father had done: to receive honours and creature comforts while escaping human responsibilities.

아이스-나인 유출사태 이후로도 프랭크는 과학 일을 하며 지낸다. 개미농장을 만들어 개미들이 물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에나 골몰하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과학으로 인해 파멸해버린 세상에서 그의 과학탐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거트는 목적이나 의도없는 과학연구는 경계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코논서를 통해 재주장한다.

> 나는 이미 여러 차례 하느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분명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었다. · · · · 그는 그 질문을 하고 또 하는 가운데 갈수록 더 미쳐갈 뿐이었다. · · · · "무언가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알고서도 전보다 현명해지지 않은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은 그처럼 어렵게 무지를 손에 넣지 않고도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 살인적인 원한에 차 있기 때문이다." (202)

> 'Beware of the man who works hard to learn something, learns it, and finds himself no wiser than before,'· · · · 'He is full of murderou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esentment of people who are ignorant without having come by their ignorance the hard way.'

보니거트는 이렇듯 호니커 박사의 삶과 업적, 그가 남긴 아이스-나인과 자식들이라는 유산을 통해 과학문명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실존인물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패러디된 호니커 박사를 위시한 과학문명 신봉자들이 순수한 연구라는 미명 아래 도덕성과 인간성의 공백을 위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묘사한다. 호니커 박사의 감독관이었던 브리드 박사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과학의 순수성에 대한 회의를 강조하게 만들고 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근무했던 작가 본인의 입장이 반영된 브리드 박사의 직원들은 과학자들의 무분별한 몰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호니커 박사의 자식들은 아이스-나인과 함께 그의 인간성 공백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결핍된 인간으로 자란다. 그리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아이스-나인을 거래한 결과, 인류 멸망에 일조하고 만다. 특히 프랭크는 과학연구에 몰입하고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호니커 박사와 가장 닮은 것으로 꼽히는데, 호니커 박사가 원폭 이후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 것처럼, 프랭크도 아이스-나인 유출사태 이후로도 과학에만 골몰해 지낸다.

이와 같이 보니거트는 인간성이 부재한 캐릭터 호니커 박사와 그가 남기는 유무형의 유산이 끼치는 파장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는 과학문명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할 인간이 상실되고도 과연 과학연구가 순수한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는 동시에 맹목적인 과학연구는 경계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통렬한 비판을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V. 종교문명의 패러디

서양문화의 양대 조류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구분하는 가설에는 큰 반론이 없을 것이다. 일찍이 아놀드(Matthew Arnold)가 『교양과 무질서』(*Culture and Anarchy*, 1869)에서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이 두 영향권 사이에서 우리의 세계는 움직인다"[51]라고 단언하였듯이, 서구문화에서 주데오-크리스챤 전통(Judeo-Christian Tradition)은 매우 긴밀하여, 헤브라익 전통(Hebraic tradition) 또는 크리스천 사상의 영향 속에서 생활해왔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미 문화권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과 감정의 소산인 영문학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이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바이블이란 그 단어의 라틴어 의미대로 '책'(Biblia, Book)이고 서양문학 이해에 필수적인 저서이다. 바이블의 기록이 그 발생 연대나 저술연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역사적 사실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인들이 바이블에 의존하여 저들의 문화를 구성하고 법과 사회, 정치체계를 만들고 나아가 사고와 감정까지 조율해 왔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바이블에 등장했던 이야기, 또는 그것의 변형물들이 문학의 모티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바이블은 그 자체로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사건, 인물, 주제, 방법이 망라되어 있는 그 집약체로서 영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연상, 혹은 은유에 대한 해석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구약 성서(Old Testment)는 스토리 중심이라 신학적 논쟁이 많이 포함된 신약 성서(New Testment)보다 영문학 이해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이야기의 소재, 인물묘사, 플롯, 문학적 장치의 사용, 테크닉 및 스타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문학과 신학 사이의 경계선을 의심하게 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일 것이다.

---

51) 매슈 아널드, 『교양과 무질서』, 윤지관 옮김 (경기 파주: 한길사, 2006), p. 1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기독교의 창세기(Genesis)를 보면, 신은 땅을 창조하고 또한 인간을 만들었다. 누구든, 다른 인간들에 대해 글을 쓰고, 그들의 고통, 사랑, 비애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작가 자신이 직접 신의 창조과정을 맛보는 것이며, 그 등장인물들에게 있어 작가는 신이나 다름없다.[52] 하나의 세상을 창조해낸 작가 보니거트는 『고양이 요람』에서 신의 존재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다양한 차원의 패러디를 통해 보여준다.

『고양이 요람』을 읽어내는 데에 있어 바이블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소설 전체의 화자로서 모든 것을 목격하는 존이 그 존재 자체로 바이블에 등장인물, 요나를 자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요람』의 첫 문장은 존이 스스로를 요나라고 칭하며 시작한다.

> 나를 요나라고 불러 달라. 내 부모님은 그렇게, 아니 그 비슷하게 부르셨다. 부모님은 나를 존이라 부르셨다. 요나-존이라. 이름이 샘이었더라도 나는 여전히 요나였을 것이다. 남에게 재수 없는 자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어김없이 가게 만들었다는 뜻에서 말이다. (1)

> Call me Jonah. My parents did, or nearly did. They called me John. Jonah - John - if I had been a Sam, I would have been a Jonah still - not because I have been unlucky for others, but because somebody or something has compelled me to be certain places at certain times, without fail.

요나는 불과 4장에 걸친 짧은 이야기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으로 유명한 성서이야기이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 비할 만큼 번영한 시대였던 한편, 당시 니느웨(Nineveh) 지역은 이전 왕들의 통치시대에 비해 국력이 약화된 때였다. 전쟁이 장기화되었던 데다가 전염병이 돌았고, 일식이 일어나 어둠에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도 있어 민심이 동요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 요나는 야훼에게서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경고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으나 두려워 '야훼의 눈앞을 벗어날 셈'(요나 1:3)으로 배를 타고 도망친다. 그러나 야훼께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켜(요나 1:4)

52) P. Zelenka, *Nove Nabozenstri Kurta Vonneguta* (Praha: H&H, 1992) p. 8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배를 침몰시키려 하자 제비뽑기를 통하여 재앙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된 뱃사람들 손에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 야훼가 음성을 듣고 구원했음에 감사드리며 서원을 갚겠다고 선포한다. 이에 야훼의 명령대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었고, 요나는 악행을 일삼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로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요나 3:4)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단식하였다(요나 3:5-6).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요나 3:10)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에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그에 긍휼히 여긴 하느님의 은혜에 동의할 수 없어, 하느님에 순종하던 요나는 분노하게 된다.[53]

요나서의 핵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친 선민의식 내지 자존심에 대한 비판과 하느님의 범애적 인간 사랑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경고가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한 요나의 항의는 니느웨의 파괴를 본보기 삼아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경고하고자 한, 진실로 경건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친 선민의식으로 인한 민족적 이기주의와 교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54] 이는 요나서에서 이어지는 아주까리 이야기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요나에게 하루동안 그늘을 드리워주던 아주까리를 다음날 하느님이 시들게 해버리자 요나가 또 항의를 한다.

>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4:10-11)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하느님이 인류 전체에 품은 깊은 사랑과 관심이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예고했던 재앙도 거둬들이는 동정심 있는 하느님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

53) 홍혜경. 「신화적 관점으로 본 요나의 삶과 현대적 적용」. 『연세상담코칭연구』, 3(2015): 355-374.

54) 변종민, 「커트 보니거트의 공상과학소설에 나타난 神性과 人間愛의 문제: 『고양이의 요람』과 『제5 도살장』을 중심으로」, 『서강영문학』, 2(1990), p. 6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반면에 보코논서에 그려지는 존의 하느님은 관조적이다 못해 무책임하며 동정심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로 그려진다. 보니거트는 보코논서를 통해 인간이 신화를 굳이 만들고자 의미를 부여하고 머리로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데, 이 역시 창조신화의 형식을 띠고 보코논서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보코논의 창조 신화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룬 장본인인 신마저도 자신의 창조나 피조물들의 존재에 별다른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신의 뜻대로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감사해하지 않고, 오히려 만물의 존재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신화를 만들려 든다는 이야기이다.

> 하느님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가 인간이었다. 인간 진흙만이 말을 할 수 있었다. 하느님은 인간 진흙이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말을 하자 가까이 몸을 기울이셨다. 인간이 눈을 끔벅거렸다.
>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공손히 물었다.
>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야 하느냐?” 하느님이 물으셨다.
> “물론입니다.” 인간이 말했다.
> “그렇다면 네가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를 생각해보아라.”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버렸다. (190)

> God created every living creature that now moveth, and one was man. Mud as man alone could speak. God leaned close as mud as man sat up, looked around, and spoke. Man blinked. ‘What is the purpose of all this?’ he asked politely.
> ‘Everything must have a purpose?’ asked God.
> ‘Certainly,’ said man.
> ‘Then I leave it to you to think of one for all this,’ said God. And He went away.

이 창조론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일련의 행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묻지만, 사실 그 이야기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그 후에 생물도 만들어낸 이유는 생물 창조 이전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우주적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한 것을 볼 수 있게”(190) 하기 위해서다. 보코논이 보기에 신은 그저 보아줄 존재를 원했던 것이고 어쩌면 피조물에게 감사를 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으며, 우주적 외로움과 거기에서 생겨난 창조욕구에 대해 공감을 받고 싶어 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질문처럼 모든 것에 어떤 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이 있어 이뤄낸 것은 아니었기에 의미부여를 요구하는 인간을 두고, 보코논교의 하느님은 가버렸다(went away). 아예 신의 자리를 비워버린 것이다. 이렇듯 보코논서의 신은 무관심하고 게으르며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위한 하나를 스스로 생각해내야 했고, 그 결과 프랭크가 보코논주의자들에게 신성한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라고 단정짓는 데서 잘 나타나듯이, 보코논교는 신성한 인간애에 기초를 둔 인본주의적 종교인 것이다.[55]

요나서에 대한 패러디는 절대자의 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양이 요람』의 존의 여정에도 드러난다. 그는 일리엄에서 돌아왔다가 아주 우연하게--보코논식으로 말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던 대로"(60) 산로렌조에 가게 된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어김없이 가게 만들었다"(1)는 점에서 요나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니느웨성을 위한 메시아가 되도록 계시받았던 것과 같이 존은 아주 우연하게,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산로렌조 섬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알렌은 "『고양이 요람』의 약점은 보니거트가 소설의 큰 두 부분을 연결하는 데에 개연성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56]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 우연이야말로 보니거트가 신이라는 존재를 논리로 풀어내길 거부했다는 의미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니느웨성에 내릴 재앙을 기다렸다가 오히려 재앙이 거둬지자 화를 냈던 요나와 차이를 둔 반복처럼 존은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에 아이스-나인에 의한 재앙을 맞이한다. 요나를 종말의 사자로 볼 수 있다면, 존 또한 그러하다. 이런 맥락에서 존이 원래 쓰려고 했던 『세상이 끝난 날』이라는 제목의 책은 치명적인 무기, 즉 원자폭탄에 의해 발생했다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인류가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연구하고 실험한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된다. 나아가 요나가 하느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고서야 그 사명을 받아들인 것 또한 패러디되고 있다. 존은 하느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고래 뱃속 대신 비밀 지하감옥에 숨어 살아남은 끝에 보코논교 신자가 된다.

---

55) 변종민, 「보니거트의 신성과 인간애의 문제」, p. 62.
56)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요나가 표류했다가 니느웨에 도착하게 된 것처럼, 보코논(Lionel Boyd Johnson, 혹은 Bokonon)과 매케이브(Corporal Earl McCabe) 역시 원래 마이애미로 향하다가 조난당해 산로렌조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처음 이 섬에 떠밀려왔을 때, 그들 역시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같이 깡마르고 굶주려있는 것에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 구제불능의 빈곤과 희망의 여지조차 없는 주민들의 고통은 인간 존재 자체의 우주적 곤경을 나타내는 메타포로서, 혹은 요나의 니느웨에 대한 패러디로서 제시된다.[57] 보니거트가 과학과 기술만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소외되는 현대사회를 패러디하기 위해 일리엄을 그려내고 있다면, 보코논교라는 거짓종교가 삶을 지탱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부재한 부정적 사회를 패러디하기 위해 산로렌조를 이용한다. 일리엄과 산로렌조 어느 쪽도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다. 결국 일리엄에서 발명된 과학기술의 정수인 아이스-나인이 거짓 종교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산로렌조에서부터 파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산로렌조 역시 치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보니거트는 산로렌조를 끔찍할 정도로 비참한 섬으로 그려낸다.

> 산로렌조 섬은 과학기술 세계의 공포로부터의 원시적, 낭만적 도피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이곳은 불모지에, 빈곤하며, 인구 과잉인데다가 인정사정없는 독재자가 휘두르고 있다.[58]

많은 사람들이 산로렌조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하느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그 섬을 무가치한 곳으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89) 산로렌조는 많은 서구 침략국들의 지배를 거쳐 급기야 탈주 노예들에게 장악되었고, 캐슬 설탕이 들어와서 착취당했다. 그곳에 도착한 존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어두운 피부색에 깡마르고 굶주린 사람들뿐이다. 이 섬사람들은 분명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처참한 산로렌조에 자리 잡은 보코논과 매케이브는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지도자가 된 둘은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듯 이데올로기를 구성하고 그것을 각 분야에 퍼뜨려 자신들의

57) Shang, X. J. *Art and Creative Imagination*: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Kurt Vonnegut's Novels (Shanghai: Shanghai UP, 2006), p. 47.
58)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6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어 산로렌조가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꿈꾼다. 보코논과 매케이브는 인간 존재 자체의 우주적 곤경을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보니거트는 이러한 동기를 작중에 드러나는 보코논서의 칼립소 중 하나로 보여준다.

> 나는 모든 것들이
>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길 바랐지.
>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긴장하지 않고
> 행복할 수 있도록.
> 그리하여 나는 그 모두가 빈틈없이 아귀가 맞도록
> 거짓말들을 지어냈고,
> 그리하여 나는 이 슬픈 세상을
> 낙-원으로 만들었네. (91)

> I wanted all things
> To seem to make some sense,
> So we all could be happy, yes,
> Instead of tense.
> And I made up lies
> So that they all fit nice,
> And I made this sad world
> A par-a-dise.

산로렌조에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 보코논과 매케이브는 권력을 나눠 가진다. 매케이브는 경제와 법률을 뜯어 고치고, 보코논은 기존 종교를 다 쫓아내고 새로운 종교를 창안했다. 하지만 산로렌조는 니느웨 읍성의 사람들처럼 반성하고 회개했다 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지 못한다. 보코논과 매케이브는 요나가 아니었고, 보니거트의 신은 자비로운 절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존슨과 매케이브는 주민들을 가난과 진창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 · · ·
> "매케이브와 존슨이 산로렌조를 재조직하던 이상주의 시기에, 이 나라의 총소득을 모든 성인에게 균등하게 분할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 조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행된 때, 한 사람에게 돌아간 몫은 6달러에서 7달러 사이였다." (95)

> Johnson and McCabe had failed to raise the people from misery and muck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 · ·‘During the idealistic phase of McCabe’s and Johnson’s reorganization of San Lorenzo, it was announced that the country’s total income would be divided among all adult persons in equal shares,’ · · · · ‘The first and only time this was tried, each share came to between six and seven dollars.’

이처럼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매케이브 쪽의 경제부흥 시도는 무참한 실패로 끝난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라고들 생각하는 것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개혁도 국민들의 비참한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그 종교는 유일한 희망의 도구”(123)로서 그 존재감이 커진다. 보코논교가 세를 확장해야만 정치세력의 힘도 강해지는 아이러니의 구조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니거트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던 낡은 경구를 패러디하고 있다. 다만 인간 존재의 고통을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런 아편이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간을 가치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차이를 만든 것이다.[59]

보니거트가 그려낸 보코논교의 인본주의에 대해 이해하려면 기독교적 태도와 비교하는 것이 유용하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지극히 매력적인 것이지만 모든 이들이 죽음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반면에, 보코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인간만이 신성한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사후 세계에서의 더 좋은 삶을 꿈꾸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 당장 더 잘 살 수 있기만 신경 쓸 뿐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것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보코논교라면, 보코논 교도들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 내내 연기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보니거트는 죽음을 맞이하는 보코논교 신자가 치르는 임종의식을 빌어 기독교의 임종의식을 패러디하며 창조신화에 대해 인본주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한다. 보코논의 임종의식 문구는 운 좋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며, 머리보다는 가슴, 이성보다는 감성을 우선시하는 인간상을 지향하라 가르친다.

“하느님은 외로워지셨다. · · · · 그래서 하느님은 진흙에게 · · · · 내가 만든 것을 보아라. · · · · 그런즉 나는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 진흙이었다. 운좋은

59) Allen, *Understanding Kurt Vonnegut*, p. 6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나, 운좋은 진흙. · · · · 나 진흙은 일어나 앉아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근사한지 보았다. · · · · 훌륭하나이다, 하느님! · · · · 당신 아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나이까, 하느님! · · · · 당신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요! · · · · 저 자신을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은,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지도 못한 그 모든 진흙을 생각하는 것 뿐이나이다. · · · · 저는 대단히 많은 것을 얻었고 대부분의 진흙은 대단히 적게 얻었나이다. · · · ·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사랑했나이다!" (158-159)

God got lonesome, · · · · So God said to some of the mud, · · · · See all I've made, · · · · And I was some of the mud that got to sit up and look around. · · · · Lucky me, lucky mud. · · · · I, mud, sat up and saw what a nice job God had done. · · · · Nice going, God! · · · · Nobody but You could have done it, God! · · · · I feel very unimportant compared to You. · · · · The only way I can feel the least bit important is to think of all the mud that didn't even get to sit up and look around. · · · · I got so much, and most mud got so little. · · · · I loved everything I saw!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고 드는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지적은 신 앞에서만이 아니라 예술을 앞두고도 드러난다. 존은 앤젤라의 천국과 지옥과 그 사이의 모든 것을 빚어낸 클라리넷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그 연주에 감탄한 존은 머리끝이 곤두서는 경험을 하고서도 가슴에서 우러나온, 감성적인 감동과 찬사를 날리는 대신 "오, 하느님. 인생 – 누가 그걸 단 1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129)라고 한다. 예술을 앞에 두고도 그 인간성의 정수를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드는 존에게 줄리언 캐슬은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하라고 충고하며 선배 보코논교 신자로서 보코논서에 나온 시를 하나 들려준다.

호랑이는 사냥해야 하고
새는 날아야 한다.
인간은 앉아서 "왜, 왜, 왜?" 하고 궁금해 해야 한다.
호랑이는 자야 하고
새는 내려앉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알았노라고 말해야 한다. (130)

Tiger got to hunt,
Bird got to fly;
Man got to sit and wonder, 'Why, why, wh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iger got to sleep,
Bird got to land;
Man got to tell himself he understand.

이 시는 당위적으로 이루어질 일들 사이에 인간의 호기심과 납득을 병렬하고 있다. 호랑이가 배곯으면 사냥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마땅하듯이, “왜?”라고 이성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도 인간이라면 당연한 특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때가 와서 사냥하고 배가 부른 호랑이는 자야하고 날아올랐던 새는 결국 내려앉아야 하듯, 인간도 마찬가지로 알았노라 납득할 줄도 알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머리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감성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이라는 것이 과연 이성과 감성, 혹은 선과 악 어느 한 가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다. 머리와 가슴, 즉 이성과 감성이, 그리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이지만 이 대조군들 사이에서 성자와 독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역동적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갇혀버린 보코논과 매케이브는 결국 미쳐버렸다는 이야기이다. 보코논이 무척 좋아하는 “역동적 긴장(Dynamic Tension)”이라는 용어로 이 아이러니한 연극의 원리와 이 연극의 결말을 설명할 수 있다. 역동적 긴장은 본디 보디빌딩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근육은 바벨이나 스프링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키울 수 있으며, 단순히 한 조의 근육을 다른 한 조와 경쟁시키는 것만으로도 키울 수 있다.”(73)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보코논은 사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확장한다. 보코논은 평화로운 사회라는 것은 이 역동적 긴장이라는, 선과 악의 아슬아슬한 균형점 위에, 즉 성스러운 종교와 세속적 정치 간의 긴장상태 위에 세워진다고 믿는다.

좋은 사회는 선과 악을 경쟁시키는 것으로만, 그리고 둘 사이의 긴장을 늘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만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 보코논의 믿음이었다. (73)

It was the belief of Bokonon that good societies could be built only by pitting good against evil, and by keeping the tension between the two high at all tim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류가 사용해 온 가장 보편적 개념인 선과 악이란, 상대적 기준에서 인정되는 것일 뿐 절대적일 수 없다.[60] 보니거트는 보코논의 말을 빌려 선악의 상대성에 대해 역설하며, 따라서 어느 개인이나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절대선과 절대악의 개념에서 비롯된 극단주의나 지상제일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법으로 인간 상호간에 신성한 사랑을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61]

하지만 보코논은 역동적 긴장의 방향을 건전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못하고 "도시의 잔인한 독재자와 정글의 인자한 성자에 관한 살아있는 전설"(161)을 만들어낸다. 보코논은 사람들에게 더욱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 인민의 신앙생활을 좀 더 열렬하고 짜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케이브에게 자신을 추방하고 자기 종교도 불법화하라고 부탁한다. 마담 투소 밀랍인형관의 '공포의 방'에서 보았던 갈고리형을 본따 보코논교 신자들에 대한 적절한 벌로 갈고리형을 제안한 것도 보코논이다. 그대로 이뤄져 박해받은 성자가 된 보코논은 숲에 은신해 추종자들이 갖다 바치는 식량에 의지해 살아간다. 보코논이 성자가 되는 순간, 그 대칭점에서 잔인한 독재자가 된 매케이브는 때때로 숲속의 보코논을 찾도록 사람들을 풀기도 하지만 보코논은 절대로 체포되지 않는다. 이 연극이 이어질수록 보코논교는 점점 더 훨씬 더 세를 불리게 된다. 시민들 거의 모두가 보코논교 신자이며 산로렌조에 흘러들어온 사람들도 보코논교로 개종하게 된다. 다만 보코논교가 부흥할수록 파파 몬자노가 2년에 한명씩은 갈고리형으로 죽여야 할 만큼 극단주의와 지상제일주의가 퍼져버린다. 그 결과 모든 산로렌조 국민들의 신경이 종교에만 쏠려 정치 경제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덕분에 로렌조 내 쿠데타에 대한 걱정은 사라진다. 산로렌조의 체제는 이렇듯 거짓말과 기만 덕분에 유지된다. 이로써 보니거트는 종교와 정치 세력이 영합하는 사회를 현실과 '차이를 가진 반복'으로 패러디해 그려낸다.

이렇게 보코논교가 만들어지고 그 세력을 불리는 과정은, 신성한 존재가 억압하는 지배자에 항거하고 박해받아도 오히려 그 과정에서 위대한 명성을 얻는다

60) Stanley Schatt, *Kurt Vonnegut, Jr.* (Boston: Twayne Publishers, 1976), p. 64.
61) 변종민, 「보니거트의 신성과 인간애의 문제」, p. 5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점에서 기독교의 초창기 포교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아도, 로마인들은 당시의 신흥종교인 기독교의 불어나는 세력과 이에 영향 받은 종교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형의 전말을 통해 예수의 이타심과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기독교는 훨씬 더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사례와 약간의 차이를 둔 반복으로 보여지는 보코논교의 탄생과정은 종교라는 의미체계가 구성단계에서부터 인위적이라는 점을 전하기 위한 패러디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보니거트는 작품 속 세상에서 보코논교를 발명하고 보코논교와 기독교의 유사점과 대조점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와 천국, 심지어 절대신의 존재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에 도전하며 그 전통적 이미지도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품게 한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선과 악의 대립선 상에서 인간을 선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자면, 특히 종교를 주창하는 단계에서 그 아이콘이 된다는 것은 선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선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조되는 정치체계는 악의 상징으로서 부역하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코논과 매케이브, 파파 몬자노는 각각 종교와 정치, 선과 악의 상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점점 망가져 간다. 온갖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생각해내서 경전을 만들고 종교를 주창해버린 보코논은 이제 신의 영역을 침범해버렸기에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단계를 지나버렸다. 보코논의 대칭점에 선 매케이브도 산로렌조를 무대로 한 연극에서 독재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스스로 독재자의 아이콘이 되는 대가로 인간의 길은 포기한 결과 매케이브의 인간성 또한 상처입기 시작했고, 상황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권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 “젊은 시절에는 두 사람이 아주 비슷해서, 둘 다 반은 천사요 반은 해적이었지. 하지만 그 연극을 하자니 보코논의 해적 부분과 매케이브의 천사 부분은 퇴화할 수밖에 없었소. · · · · 처음 목적이야 아주 실제적이었지만, 두 사람 다 미쳐버렸소.” (124-12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s young men, they had been pretty much alike, had both been half-angel, half-pirate. “But the drama demanded that the pirate half of Bokonon and the angel half of McCabe wither away. · · · · They both became, for all practical purposes, insane.”

연극처럼, “냉소적이고 장난스럽게”(122) 시작했던 종교세력과 정치세력의 갈등 흉내는, 서로를 없애 역동적 긴장을 깨부술 만큼 미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2년에 한 사람씩은 갈고리형에 처할 만큼 긴장의 파장이 커져서 파국의 위기에 처한다. 보코논의 경쟁상대로서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매케이브는 “억누를 길 없는 마성이 그를 소진”시켰는지 “자기 집사장을 후계자로 지명한 뒤 총으로 자기를 쏘아”(132) 자살해버렸고, 후임이 된 파파 몬자노는 병들어 죽어가게 된다. 급기야 파파 몬자노는 자기 후임이 누가 되든 그건 상관없다면서도 보코논은 꼭 죽이라고 당부한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아 미안하다고 전하라면서, 보코논의 사멸이 국민의 계몽뿐만 아니라 보코논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암시한다.

> “보코논. 보코논을 잡게.” · · · ·
> “그에게 내가 죽이지 않아 미안하다고 전하게.” ‘파파’가 말했다. · · · ·
> “자네가 그를 죽이게.” · · · · “내 말은 진심일세!” · · · · “그는 국민에게 거짓말만 가르쳤네. 그를 죽이고 국민에게 진실을 가르치게.” (156)

> ‘Bokonon. Get Bokonon.’ · · · ·
> ‘Tell him I am sorry I did not kill him,’ said ‘Papa’. · · · ·
> ‘You kill him.’ · · · · ‘I mean really!’ · · · · ‘He teaches the people lies and lies and lies. Kill him and teach the people truth.’

보코논의 사멸을 당부하고도 보코논교 신자로서 죽음을 맞겠다며 기독교 성자를 쫓아낸 파파 몬자노는 정치세력과 종교세력의 역동적 긴장관계를 깨트리고 온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단초를 제공한다. 보코논교식의 임종의식을 치르고는 “이제 내가 온 세상을 멸망시키겠어”(170)라고 보코논교 신자들이 자살할 때 늘 하는 말을 하며 파파는 아이스-나인으로 자살해버린다. 정치세력이자 악의 상징이 되어버린 파파가 사실은 자신도 선의 체계, 보코논교의 추종자라면서도 경제의 총수로서 입수한 과학문명의 정수로 혁신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자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선택하는 것은 선과 악, 종교와 정치세력의 역동적 긴장이 깨지면서 초래될 파멸을 예고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의 하느님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산로렌조는, 구제받았던 니느웨와는 달리 인간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했던 현실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세계 멸망의 근원지가 되어버리고 만다. 예고했던 재앙조차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 신의 의지로 인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에 의해 인간의 손으로 재앙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요나서의 하느님과는 차이가 있는 반복이 이뤄지게 된다.

보니거트는 보코논교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풍자하고 부정함으로써 안식과 구원자라는 전통적 관념 자체에 도전하고 보코논교를 위시한 종교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종교라는 의미체계의 인위성과 허구성이 보코논교의 경전에서 노골적인 선언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려는 진실들은 모두 뻔뻔스런 거짓말”(4)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보코논은 그 선언 자체로 종교라는 이름의 신념체계와 종교 교리, 또는 경전 등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미체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다. 동시에 종교 자체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에게, 신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와 의의를 결정하는 존재이며, 그 가르침들은 삶의 진리이며 진실이자 기준으로서 존중받는다. 그런데 『고양이 요람』에서는 보코논이라는 사람이 산로렌조에서 보코논교를 새로이 구축하였으면서도, 보코논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스런 거짓말로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서두에서부터 포마(Foma), 즉 해가 되지 않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선언한다. 보니거트가 좋아하는 작가로 항상 꼽아온 올더스 헉슬리(Aldous L.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1932)를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다. 『멋진 신세계』 속에서 세계국 시민들은 계급별로 대량 일괄 생산되는 사회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계급사회의 시민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이성적 철학적 사고를 차단시키기 위해 마약 소마(Soma)가 제공된다. 이 소마는 헉슬리가 그려낸 인위적 사회체제에서 계급 갈등을 예방하고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마를 모티프로 한 포마, 즉 거짓말에 대한 보코논서의 서두는 거짓으로 이루어진 경전, 그것이 담고 있는 가르침조차 사회유지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니거트의 입장은 존의 독백과 보코논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나의 보코논식 경고는 이렇다.
> 유익한 종교가 어떻게 거짓말을 토대로 건설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책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 할 수 없지 뭐. (4)

> My Bokononist warning is this:
> Anyone unable to understand how a useful religion can be founded on lies will not understand this book either.
> So be it.

종교의 토대가 되는 거짓말에 대해서, 신화 자체도 허구이며 인위성이 개입한다는 사실은 보코논교의 우주생성론에 대한 보코논 자신의 견해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보코논은 자신의 우주생성론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그는 “포마! 거짓말! 포마 한 봉지!”(136)라고 선언한다.

보니거트는 종교의 특징적 언어사용에 대해서도 보코논교를 통해 차이를 둔 반복을 보여줌으로써 그 허구성과 인위성을 고발하고 있다. 보코논교의 경전인 보코논서는 매일매일 보코논 자신이 직접 쓰기 때문에 절대 마무리지어지지 않을 것이고, 인쇄되어 출판되지도 않을 항상 변화하고 확장되는 종교서이다. 보코논서에 대해 이런 설명을 들은 뉴트는 “고양이가 보여요? 요람이 보여요?”(130)를 다시 한 번 외친다. 이처럼 보니거트는 종교의 의미부여 체계가 인위적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보니거트는 보코논교를 통해 기독교의 의미부여 체계가 자의적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보코논교의 몇 가지 용어들과 종교적 의식들이, 또 그것을 지칭하는 우스꽝스러운 용어들이 기독교의 용어와 의식들과 비교했을 때 그 작위적 양상을 드러내는 예시가 된다. 카라스(karass)나 칸-칸(kan-kan), 웜피터(wampeter), 보코마루(boko-maru)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 카라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팀들”이며, “당신의 삶이 이렇다할 논리적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삶과 얽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같은 카라스의 성원이다”(2)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운명을 설명하고 합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화하는 방식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카라스의 구성원들을 한데 아우르는 도구는 칸-칸이라고 한다. 가장 기괴한 것은 보코-마루라는 것인데, 이는 의식의 소통 방식이다. 보코논교 신자 둘이 서로를 껴안은 채 발을 뻗어 맨발들끼리 비비는 것이다. 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우스꽝스러운 의식은 이 섬사람들에게 일종의 신뢰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 형제자매 간에 우애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임종의식을 기독교식으로 치러주고자 대기하던 기독교 성직자가 하나 있다. 복스 후마나(Vox Humana) 박사로, 그 이름은 파이프오르간의 음전(음변환 키)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인간의 목소리라는 뜻이다. 산로렌조의 아마도 유일한 기독교 성직자인 그는 일개 인간이 스스로 의지할 시스템을 찾아 헤맬 때 보일 수 있는 허점들을 실체화한다.

> 대기실에는 · · · · 기독교 성직자도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파파'에게 영적 욕구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알리는 놋쇠 종과 구멍이 숭숭 뚫린 모자상자와 성서와 도살용 칼을 갖고 있었는데, 모두 곁에 있는 테이블에 늘어놓았다.
> 그는 내게 모자상자에는 산 닭이 한 마리 들어있다고 말했다. · · · ·
> 나는 그가 어느 기독교 교파에 속하는지 묻고, 그 닭과 도살용 칼은 내가 아는 기독교에서는 생소한 물건이라고 솔직히 말해주었다. · · · ·
>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보코논교와 함께 불법화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듬더듬 길을 찾아서 기독교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53)

> There was also a Christian minister, who was ready to take care of 'Papa's' spiritual needs as they arose. He had a brass dinner bell and a hatbox with holes drilled in it, and a Bible, and a butcher knife--all laid out on the bench beside him.
> He told me there was a live chicken in the hatbox · · · ·
> I asked him what particular Christian sect he represented, and I observed frankly that the chicken and the butcher knife were novelties insofar as my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went.
> He said that he had had to feel his way along with Christianity, since Catholicism and Protestantism had been outlawed along with Bokononism.

그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보코논교와 함께 불법화되었는데도 산로렌조의 정치체제에 순종하지도 않고 산로렌조에서 다수의 보코논교에 따르지도 않은 채 혼자서 "더듬더듬 길을 찾아서 기독교를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 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황에서 기독교인이 되려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요."(154)라고도 인정하는 그가 임종의식을 위해 준비한 것은 산 닭과 푸주간 칼이었던 것은 희화화를 넘어 동정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이상한 종교의 용어와 의식들을 통해 보니거트는 많은 독자들이 종교에 대해 더 강렬한 풍자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보니거트가 파악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이 품는 의문과 고뇌들에 대한 해답은 종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바이블에 그려지는 것처럼 심판을 내리거나 인류를 구원하는 절대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어 온전히 인간의 행동만이 그 인과관계를 통해 인간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줄거리를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이유에서 출발한 것이다. 보니거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이 정신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와 그 창조 신화, 종교의 의식적 체계까지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라는 점을 보코논교를 통해 집약적으로 패러디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문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Ⅴ. 결론

대공황으로 모든 것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렸던 시기에 이어진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 자체로의 여파가 너무도 강력하여 온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모두 뒤엎었다. 그 붕괴의 잔재 속에서도 보니거트는 자기 부모들처럼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조리 부서져 버린 폐허에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고 실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순수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과학기술만 맹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는 종교가 구원이 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유머의 힘을 빌려 비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 그에 대응하는 표현방식을 찾아내야만 했던 것이다. 보니거트는 문화권 안에 공유되는 기초적 문학구조조차도 개인의 경험과 하나하나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름의 대안을 찾아 표현하고자 했고, 그 방식은 바로 패러디의 형식을 빌려 비판적 기능을 구현한 것이다.

패러디라는 방식의 정의를 고전적·사전적 의미에서만 파악하기보다는 자기반영성이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스트적 관점에서 폭넓게 확장하고 보면, 작가 개인의 삶의 경험조차도 패러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세울 수 있다. 이 전제를 『고양이 요람』의 해석에 적용하면 작가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작중 등장인물들의 특징과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실마리임을 알 수 있으며, 보니거트 개인의 목숨이 걸렸던 드레스덴 폭격 경험은 특히 작품의 전개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모방을 넘어선 패러디의 재구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작가의 관점과 해석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패러디의 결과물인 작품은 그 자체로 비판적인 기능을 띠게 된다.

『고양이 요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패러디들은 그 비판의 대상에 따라 다양하다. 보니거트는 과학문명에의 비판을 위해 과학우월주의의 표상인 일리엄을 하나의 무대로 삼았다. 제너럴 단조주조 회사 연구소가 있는 일리엄은 그 자체로 보니거트가 근무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있던 스키넥터디를 패러디한 곳이다. 원자폭탄 개발에 큰 공헌을 한 호니커 박사는 사후에도 연구소에 전시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간이 꾸며져 있을 만큼 상징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지만, 실제로 그를 겪어본 사람들의 목격담을 통해 보면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예 인간성이 없다고 그려지는 인물이다. 호니커 박사는 그 자신이 온전한 인간이 아니기에 그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들--원자폭탄, 아이스-나인, 그리고 그의 자식들까지도-- 또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일리엄의 인물들을 통해서는 작가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사람들과 사건들이 패러디 방식을 통해 작품 속에 여실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보니거트는 과학문명의 대칭점으로 산로렌조라는 비참한 섬을 또 하나의 무대로 삼는다. 요나라고 자칭한 소설의 화자가 호니커 박사의 유산을 쫓아 따라 들어간 이 섬은 요나서의 니느웨를 패러디한다. 기독교를 패러디하여 보코논교를 창조하고 그 종교의 양상과 발전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종교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유지체제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소설 전체의 전개방식은 기독교 경전인 요나서의 전개양상을 따르고 있지만, 요나서의 하느님과 달리 보코논교의 하느님은 인류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지도 않는다. 또한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회개하였음을 이유로 구원받았던 니느웨와 달리 산로렌조에서는 온전히 인간들의 행위가 야기한 인과에 의해 종말이 닥치고 만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기독교의 창세기를 패러디한 보코논서의 창조신화를 통해서는,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기어이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 인간의 행태를 드러냄으로써 인본주의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보니거트는 『고양이 요람』에서 이데올로기 구성, 종교 신화, 종교 부흥, 경전과 교리의 허구성과 인위성 등을 패러디라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표현방식을 빌어 비판하고 있다. 종교 비판에 있어서는 그 종교 체계가 갖는 인위성과 허구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 존재 자체가 최우선 순위의 가치가 되어야함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보니거트는『고양이 요람』에서 자신의 실존적 삶의 역사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반영의 패러디 방식으로 서사구조를 설정하고 현대문명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와 과학문명을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인 보니거트가 체험한 가족과 성장환경, 제2차 세계대전, 종교적 허무주의, 과학문명의 위기는 그 자체로 텍스트가 되어 패러디의 대상이 된다. 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라서 이 소설을 한 편의 공상과학소설로만 읽어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작품 안팎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패러디를 통한 작가의 비판의식과 그를 통한 새로운 비전을 읽어낼 수 있다면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자기반영의 패러디를 통해 보니거트는 가족들의 죽음과 전쟁의 상흔으로 망가지고 훼손된 자신의 영혼과 삶의 의미를 재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는 과학우월주의자들과 종교 신봉자들이 주장하는 이상이 간과하고 있는 인간 최우선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재발견한다. 그러므로 작품 전반을 지배하는 비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보니거트는 『고양이 요람』에서 자기반영의 패러디를 통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삶의 가치를 회복시키길 바라며, 종교와 과학이 지닌 절대적 가치체계 대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온정을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 고 문 헌

1. Text:

Vonnegut, Kurt. *Cat's Cradle*. 1963. London: Penguin Books, 2008.

박웅희. 『고양이 요람』. 일산: 아이필드, 2004.

2. References:

김욱동.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변종민. 「Kurt Vonnegut, Jr.의 Cat's Cradle에 나타난 力動的 均衡과 神聖의 人間愛」, 『제주대학교논문집』 24.1(1987), pp. 81-97.

_____. 「커트 보니거트의 공상과학소설에 나타난 神性과 人間愛의 문제: 『고양이의 요람』과 『제5 도살장』을 중심으로」, 『서강영문학』, 1990 가을: 57-72.

박광희. 「커트 보니것의 문명관과 비전 연구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55.4 (2013): 161-180.

신인철. 「Metafiction으로서의 *Cat's Cradle*」. 『동아영어영문학』, 6 (1990): 61-78.

유혜령. 「포스트모더니즘과 교육」. 『정신문화연구』 14(2) (1991): 183-197.

육은정. 「Kurt Vonnegut의 초기소설 연구-비관주의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9.

아널드, 매슈. 『교양과 무질서』. 윤지관 역, 경기 파주: 한길사, 2006.

한은구.「실재와 허구의 탐색: Kurt Vonnegut 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원 영어영문학 박사학위논문, 1992.

허천, 린다. 『패로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문예출판사, 1992.

홍혜경. 「신화적 관점으로 본 요나의 삶과 현대적 적용」. 『연세상담코칭연구』 3(2015): 355-37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rams, M. H. *A Glossary of Literary Terms.*『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옮김, 서울: 예림기획, 1997.

Allen, W. R.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8.

_____. *Understanding Kurt Vonnegut..* South Carolina: U of South Carolina P., 2009.

Barth, John. "Literature of Replenishment", *Essentials of the Theory of Fiction*, Durham : Duke UP, 1988.

Bate, W. Jackson. *The Burden of the Past and the English Poet,* Cambridge: Harvard UP, 1970.

Byun, Jong Min. "Some Aspects of Confucianism in Vonnegut's *Cat's Cradle*", 『영어영문학』37.4, 한국영어영문학회, (1991), 973-981.

Buck, Lynn. "Vonnegut's World of Comic Futilit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5.

Caputo, J. D. *Radical Hermeneutics: Repetition, Deconstruction and the Hermeneutic Project*. Bloomington; Indiana U, 1987.

Chen, S. D. *A Study of American Postmodernist Fiction.* Beijing: Higher Education P, 2007.

Giannone, Richard. *Vonnegut: A Preface to His Novels.* Port Washington, NY: Kennikat P, 1977.

Hendin, Josephine. *Vulnerable People: A View of American Fiction Since 1945.* New York: Oxford UP, 1979.

Hongli, J. I. A. "Vonnegut's Reconstruction of Religion and World Order: Parody in Vonnegut's *Cat's Cradle*", *Canadian Social Science* 12.10(2016): 82-85.

Hutcheon, Linda. "Parody without Ridicule: Observations on Modern Literary Parody." *Canadian Review of Comparative Literature/Revue Canadienne de Littérature Comparée* 5.2 (1978): 201-211

Jameson, Fredric.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te Capitlism.*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urham: Duke UP, 1991.

Kiernan, Roboert. *American Writing Since 1945.* New York : Frederick Ungar, 1983.

Luo, X. Y. *The Study on American Postmodernist Kurt Vonnegut,* Chongqing: Chongqing P, 2006.

McHale, Brian. *Postmodernist Fiction.* London: Methuen, 1987.

Reed, Peter J. *Kurt Vonnegut, Jr.* New York: Warner, 1972.

Rose, M. *Parody/Meta-fiction: An Analysis of Parody as Critical Mirror to the Writing and Reception of Fiction.* London: Croom Helm, 1979.

Said, Edward W.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3.

Schatt, Stanley. *Kurt Vonnegut, Jr.* Boston: Twayne Publishers, 1976.

Schulz, Max F. *Black Humor Fiction of the Sixties.* Athens: Ohio UP, 1973.

Shang, X. J. *Art and Creative Imagination: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Kurt Vonnegut's Novels*. Shanghai: Shanghai UP, 2006.

Tanners, Tony. *City of Words.* London: Harper & Row, 1971.

Vonnegut, Kurt. *A Man without a Country*.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1.

_____. *Jailbird*: a Novel. New York: Delacorte Press, 1979.

_____. *Mother Night*, New York: Dial Press, 2009.

_____. *Slapstick or Lonesome no More!.* New York: Dial Press, 2010.

Warner, Michael. "Literary Studies and the History of the Book." *Book* 12: 3-0.

Waugh, Patrician. *Metafi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elf-Conscious Fiction*. London: Methuen, 1983.

Zelenka, P.. *Nove Nabozenstri Kurta Vonneguta.* Praha: H&H, 199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Parody and Critical Functions in Vonnegut's *Cat's Cradle*

Chong Huiu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In *Cat's Cradle*, which was first published in 1963, Kurt Vonnegut describes a writer's journey while writing a book named *The Day the World Ended*. Following the journey, readers can see the bitter yet hilarious description of Vonnegut on science and relig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the parody on the obscurity of the truth Vonnegut tries to show and interpret the purpose of his doing so, and the way in which Vonnegut realized it in his novel.

Knowing and understanding Vonnegut's personal life and experiences help us understand the reason behind the unique developments of the story in spite of his inherited cultural conventions. World War II devastated everything. Even his mother's suicide had an impact on his expectations from people. Neither Father nor God helped him. Standing alive in this catastrophe, Vonnegut finds human life as the only and the best value to keep.

To treat human life what it deserves, he takes a step away from his life path for critical distance. Revisiting his own life, he reflects on his famil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background, his mother's death, and his relationship with his indifferent father in his works. His mother committing suicide led to the absence of a motherly figure, and lowered the minimum expectations on women figures in the novel. A cold and unfriendly relationship with his own father is reflected in the fathers in the work, and there is no resolution of pressure from the Oedipus complex. Vonnegut's experience of war, which may be the most crucial side effects of science, led him to criticize reckless faith in science. His work experience to make a living for his children, and his brother's invention being exploited in the war also led him to be critical about the recklessness of science. As even religious belief could not save his soul, then the reflection of its artificiality depicts his criticism on religions, which is done by illustrating the creation of Bokononism and how it is being followed in life.

Although *Cat's Cradle* cannot be labeled as a complete work of his experiences, it is still worth analyzing the trials and consequences along the way. To read through *Cat's cradle* as merely a science fiction book will make it an enjoyable read; however, being aware of the reason certain ideas are portrayed in this book helps us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themes. Broken and traumatized from the war and his family members' death, Vonnegut still looks for value to keep and support and he did so in the most apt way. *Cat's Cradle* is worth reading and digging deeper because it shows how he attempted to show the values human beings should hav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